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8호 | 2024 봄

포커스 I 동북아역사재단과 발해사

포커스 II 인물로 본 발해

동북아역사포커스 제8호 (2024 봄)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8 Spring 2024)

동북아역사포커스

제8호 2024 봄

발행일 2024년 3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박지향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위가야, 이동욱, 조건, 조운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의 글 위가야 동북아역사포커스 제8호 기획편집위원	4
특별기고	발해사의 새로운 관점을 찾아서 이성시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8
포커스 I 동북아역사재단과 발해사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의 회고와 전망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26
	발해사 연구를 위한 한중일 사료 연구, 『발해사 자료총서』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38
포커스 II 인물로 본 발해	대조영의 출신과 건국지 논쟁 임상선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50
	대무예와 대문예 형제 윤재운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62
	발해 정혜공주·정효공주의 묘와 묘지 박유정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70
	고려인이 된 발해인 박순우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82
	유득공과 『발해고』 김종복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94
현지통신	이제는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을 주시해야 한다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04

발해는 698년 대조영(大祚榮)이 건국한 이래 926년 마지막 왕인 대인선(大諲譔) 때 거란(契丹)의 침입으로 멸망하기까지 약 229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발해의 지리적 범위는 오늘날 중국의 동북 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거의 포함하고 한반도의 북부와 러시아의 연해주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넓은 영토를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서 중국의 당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린 발해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단편적입니다. 그저 고구려를 계승하여 번영하다가 갑자기 멸망한 나라, 좀 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1980년대 이후 발해사 귀속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른바 ‘동북 공정(東北工程)’을 통해 발해사를 ‘중화민족’의 역사로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정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그동안 다방면의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본 발해사』, 『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 등의 교양서를 발간하여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에게 발해사의 진면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제8호에서는 그동안 재단에서 진행한 발해사 관련 학술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인물로 보는 발해’라는 주제로 당대를 살았던 발해인과 발해를 계승하고 이해하려 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먼저 「특별기고」에서는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이성시(李成市) 명예교수가 지금까지 한중일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발해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 나름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성시 교수는 발해의 복수 ‘민족집단’으로 구성된 국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관점으로 ‘에스니시티(ethnicity)론’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며, 이것이 각국의 민족정책이나 민족관에 얽매어 방법론적 문제를 내포한 발해사 연구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성시 교수가 글에서 제시한 발해사 이해가 일정 부분 한국 학계의 통설적 이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해사 연구가 일국사의 구조를 넘어 발해의 지정학적·문명적 위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의 제시는 향후 연구의 진전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으로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I」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과 발해사’라는 대주제 아래 재단에서 진행한 발해사 연구 가운데, 유적 발굴과 사료 연구를 대표하는 두 연구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적 발굴 분야에서는 김은국 재단 명예연구위원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위치한 크라스키노(Kraskino) 발해성 발굴 성과를 회고하고 향후 과제를 전망하였습니다. 크라스키노성은 발해의 염주성(鹽州城)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단은 러시아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발굴을 진행하여 염주성의 고고학적 역사와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은국 명예연구위원은 재단이 크라스키노성 발굴의 진정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발굴 성과를 통해 발해사를 복원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료 연구 분야에서는 권은주 재단 연구위원이 『발해사 자료총서』의 기획 의도와 출판 과정을 설명하고, 총서 발간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권은주 연구위원은 『발해사 자료총서』가 단순히 역주서의 출판이라는 하나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해사를 복원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할 것인지 연구하기 위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발해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시기 적절한 작업이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커스 II」에서는 ‘인물로 본 발해’라는 대주제 아래 발해의 역사적 인물 및 발해를 계승하고 이해하려 했던 인물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임상선 대구대학교 연구교수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을 소개하면서 대조영의 출신과 발해 건국지에 대한 사료 기록과 최근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발해가 고구려 옛 땅에 ‘고려별종(高麗別種)’인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계 주민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임이 분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재운 대구대학교 교수는 발해의 2대 왕인 무왕 대무예(大武藝)와 그의 동생인 대문예(大門藝)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해 일어난 발해와 당의 전쟁과 외교전의 전말을 발해 국내외적 상황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유정 서울대학교 강사는 발해인이 직접 남긴 생생한 자료인 정혜공주(貞惠公主)·정효공주(貞孝公主) 묘지(墓誌)에 대해 발견 경위를 상세히 소개하고 묘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8세기 발해 사회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글의 말미에서 소개한 효의황후(孝懿皇后)와 순목황후(順穆皇后)의 묘지명 전문이 하루빨리 파악되어 발해사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박순우 군산대학교 강사는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에 정착한 발해인의 삶을 발해인 자신의 노력과 고려 조정의 정책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고려인이 된 발해인이 어떻게 한반도에 정착·융화하여 고려시대 발해인, 그리고 조선시대 발해인으로 조화롭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좌표 설정에도 중요하다는 지적은 발해사 연구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합니다.

다섯 번째, 김종복 안동대학교 교수는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유득공(柳得恭)

이 『발해고(渤海考)』를 지은 이유를 남북국시대론을 주장하고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는 맥락에서 정리하고, 『발해고』가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실학자 유득공의 실증적이고 박학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중세역사학으로서의 한계 또한 엄존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통신」에서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중국 길림성 내 발해 유적 및 백두산과 그 주변의 너인고성(訥殷古城), 백산시 창바이산만족 문화박물관, 육정산고분군 등을 둘러본 소감을 정리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창바이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으로 더욱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글들이 독자들께 발해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단과 학계의 발해사 연구 성과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 연해주에 남아 있는 발해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중국 및 러시아 학계와의 교류와 연구가 좀더 활발해져서 열악한 연구 환경 아래 고투를 거듭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제8호 기획편집위원
위가야

발해사의 새로운 관점을 찾아서

이성시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1. 머리말

해방 후 발해사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신기원을 연 연구는 박시형의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1962)일 것이다. 발해사를 조선사라는 테두리 속으로 확실하게 포섭하고자 설계된 박시형의 발해사에 대한 시각은 남북한 학계에서 전개되는 발해사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짓기에 이르렀다. 한국 학계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야 남북 국시대론의 담론에서 발해사 연구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학사적으로 볼 때 박시형이 설계한 시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¹

동북공정(東北工程)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참여화한 발해사 논쟁은 발해사가 전개된 지역이 지

1 이성시, 2000, 「발해사 연구에서의 국가와 민족」, 『만들어진 고대』, 삼인출판사.

특별기고

금의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북부에 걸친 지역을 포괄하는 데에 기인한다. 물론 발해국의 영역과 근대 국제법적 국경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구 역사에서 특별한 사례가 아니며 도리어 전근대 왕조의 영역과 국민국가의 영역이 일치하는 사례는 결코 많지 않다.²

그러나 발해사가 전개된 지역을 거시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서 전개된 왕조는 비단 발해만이 아니다. 발해 이전에는 거의 같은 영역에서 고구려가 탄생했다 사라졌으며, 발해 멸망 이후에는 요, 금, 후금(청)과 같은 왕조가 거의 겹치는 영역에서 등장하였다. 이 왕조들은 단순히 지정학적·문화적·지리적 영역만 공유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국 왕조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히 자국의 존망을 건 전쟁을 되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한반도를 지배하던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의 왕조들과도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요컨대 지정학적·전략적 위치에서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지리적·역사적 깊이의 차원”(Ahmet Davutoğlu)에서도 공통점이 적지 않다.³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일찍이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가 주창했던 바와 같이 만주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해사를 ‘만주사’에 포섭하려는 것은 아니다. 발해사가 전개된 지역의 고유성에 주목하여 “지리적·역사

2 パトリック・J・ギアリ 지, 鈴木道成 외 역, 2008, 『ネイションという神話—ヨーロッパ諸国家の中世的起源』, 白水社(원서는 Patrick J. Geary, *The Myth of Nations: The Medieval Origins of Europe*)는 발해사를 둘러싼 비슷한 논쟁이 유럽 국가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데 유익하다. 기어리(Geary)는 그러한 문헌학과 고고학을 원용한 부정적 유산을 ‘유독 폐기물’로 명명하고 있다.

3 アフメト・ダウトオール 지, 中田考監 역, 2020, 『文明の交差点の地政学—トルコ革新外交のグランドプラン』(원서는 Ahmet Davutoğlu, *Stratejik Derinlik: Türkiye'nin Uluslararası Konumu*).

특별기고

적 깊이의 차원”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는 작업은 문헌사료, 고고학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발해사에 새로운 발견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의 지배적인 테두리를 초월해 발해사를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또한 이 지역(동북아시아)에 대한 현재의 지견(知見)을 발전시킬 거라 확신한다.

다음에서는 필자가 현재 품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해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다.

2. 발해 국가의 민족 구성

주지하다시피 발해국은 어떤 특정 단일 민족집단으로 구성된 국가가 아닌 여러 에스노스(ethnos: 민족집단)로 구성되어 있었다. 발해가 존속했던 지역은 중국(수) 측이 ‘말갈 7부(靺鞨七部)’라 칭하던 속말(粟末), 백돌(伯咄), 안거골(安車骨), 불열(拂涅), 호실(號室), 흑수(黑水), 백산(白山)이라는 여러 부가 합쳐졌으며, 그 후 철리(鐵利), 월희(越喜), 우루(虞婁) 등과 같은 부락 이름도 전한다. ‘말갈’은 중국 왕조에서 붙인 통칭이며, 말갈 여러 부의 명칭은 각 부의 자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들 여러 부에서는 각각 고유한 문화적 성격이 확인된다. 이러한 여러 민족집단으로 구성된 발해의 국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그 분석 관점으로 에스니시티(ethnicity)론 도입을 제창한 바 있다.⁴

돌이켜보면 19세기 이후의 기존 정치학에서는 국민국가가 형성되면

4 이성시, 2019, 『발해사를 둘러싼 민족과 국가』,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이성시, 2024, 『한국 고대사 연구를 통해 본 동아시아사의 전망』, 『관약사론』 4.

특별기고

자연스럽게 민족(국민)이 형성된다는 민족 형성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그러한 통설은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에스니시티론이 제기되었다. 정치학에서 에스니시티론이 출현한 것은 실제 세계 각지에서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의 자기 주장이 분출하면서 기존 국민국가론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nation’, ‘folk’와 같은 근대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 것이 에스니시티론인 셈이다.

필자가 일찍이 발해사에 에스니시티론을 작업가설로 끌어온 것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족속(族屬) 문제’라는 과제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제기하는 민족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근대 민족 형성사에 관한 학술적 논쟁을 헛되게 하는 양상을 목도했기 때문이다.⁵

기쿠치 도시히코(菊池俊彦)가 밝혔듯이 고고학적으로는 물론 문헌적으로도 발해가 문화를 달리하는 말갈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⁶ 앞서 언급했듯이 발해를 구성했던 말갈은 단지 중국 측에서 붙인 통칭일 뿐 스스로 붙인 자칭이 아니었다. 수대부터 중국 측에 7부의 부족 이름이 전해지기는 했으나 여러 부족이 그 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갈 여러 부족의 존재 양상을 분절화할 필요성에서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에스닉 아이덴티티(ethnic identity)에 착안하여 발해사를 구성했던 말갈 여러 부족에 에스니시티론을 원용한 것이다.

에스니시티 연구에 따르면, 에스니시티(에스노스)는 민족적 속성(객관적

5 이성시, 2019, 『발해사를 둘러싼 민족과 국가』,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삼인.

6 菊池俊彦, 1995, 『北東アジア古代文化の研究』, 北海道大学出版会.

“

에스니시티 연구에 따르면, 에스니시티(에스노스)는 민족적 속성(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자기 주장(주관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말갈 여러 부족의 에스닉 아이덴티티 사례를 볼 때 발해의 건국기와 멸망기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은 에스니시티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

지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자기 주장(주관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말갈 여러 부족의 에스닉 아이덴티티 사례를 볼 때 발해의 건국기와 멸망기에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은 에스니시티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컨대 에스닉 아이덴티티는 실체화할 수 없으며 그때그때의 정세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민족적 속성이나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불변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령 당에 납치된 백제인의 묘지(墓誌)에서 보듯이 그들의 에스닉 아이덴티티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변화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의 지배자 집단에 편입되어 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한반도의 백제보다 중국의 고전적 교양에 의거해 그들 시조의 기원을 중국 고대 세계로 소급하는 경향을 명확하게 드러낸다.⁷ 그를 통해 당 왕조와의 친밀성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위상 제고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자신의 전략이나 현실 정세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에스닉 그

7 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 2015, 「祿軍墓誌訳注」, 『史滴』 37.

특별기고

릅의 정체성은 실체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계성 속에서 변화한다. 즉 가변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발해의 사신이 일본에 왔을 때 고구려국의 계승 자임을 자처한 것을 들어 고구려 계승의식을 실체화하려는 연구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일본 정세나 그것에 얽매인 지배층의 역사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관점이 필수 불가결하다.

에스니시티론을 발해사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로는 말갈의 여러 집단이 발해 건국 전후(8세기 중반까지)로 독자적인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당과 빈번하게 교역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779년 일본에 도착한 발해 사신단은 일본과의 교섭 도중 갑자기 철리부(鐵利府)임을 표명하고 사신단 내부적으로는 누가 상석에 앉을지를 다투어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과시하였다. 즉 발해 건국 초기 말갈의 여러 부족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발해국의 통치가 강화되자 그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발해 왕조의 권력이 약화하자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에 걸쳐 말갈의 여러 부족은 자립하여 국호를 붙여 칭하는 등 정체성을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처럼 발해의 대내외 상황에 따라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겉으로 표면화되거나 미약해지는 것은 에스니시티 연구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적인 발해사 연구 현황을 보면, 방법론적으로 말갈 여러 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의식하고 있는지는 불명료하다. 박시형은 지배민족이 고구려라는 점을 들어 지배층인 고구려족과 피지배층인 말갈족의 이중 구조로 환원하여 단순화시켰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말갈 여러 부족의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피지배민족은 결코 단단

특별기고

하게 결속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발해의 지배에 말갈족이 통합되고 융합되었다고 단순화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에스니시티론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기존의 발해사 연구는 발해의 복잡한 민족 구성을 경시하는 등 각국의 민족정책이나 민족관에 단단하게 얽매인 탓에 방법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 머리말에서 지적했듯이 발해의 복잡한 민족 구성은 발해 특유의 성격이 아니며 고구려에서도 그 후의 요, 금, 후금(청)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민족 구성의 다양성을 이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깊이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발해의 언어와 리터러시

발해국이 여러 민족집단으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거주했던 여러 민족의 언어와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 문제이다. 특히 발해의 언어 문제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교섭에서 등장하는 ‘통역[通事]’ 연구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측의 발해 통역이 당에 다녀온 경험자였다는 것을 근거로, 발해 사신과 일본 측 통역이 사용한 언어가 한어(漢語)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⁸

주목되는 것은 9세기 초엽의 사례로 발해 사신단 무리에서 이탈해에 치젠국(越前國: 후쿠이현)으로 도주한 발해 사신단의 수령(首領) 고다불(高

8 酒寄雅志, 2001, 「渤海通事の研究」,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특별기고

多佛)을 옛추국(越中國: 도야마현)으로 보내어 그곳의 사생(史生)과 습어생(習語生)에게 ‘발해어’(한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말갈 부족의 언어를 ‘발해어’라고 단순하게 한데 묶기도 어렵다)를 가르치게 했다는 기사[『일본기략(日本紀略)』 고닌(弘仁) 원년(810) 5월 병인(丙寅)조]이다.⁹ 이를 볼 때 일본 측도 발해에 외교 공용어(한어)와는 별개로 고유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요컨대 발해국에서는 대외적으로 한어를 썼으나 내부적으로는 말갈 부족의 언어를 인정했고 그러한 언어 상황이 발해국 외부에도 전해졌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옛추국의 사생과 습어생에게 발해어를 가르쳤다고 전하는 수령 고다불은 그 성(姓)을 보건대 고구려계 인물로 추정된다. 사료를 보면 발해 사신단에는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다. 특히 통역 중에도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779년 데와국(出羽國)에 도착한 발해 사신은 다수의 철리부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대사(大使)에 해당하는 압령(押領) 고양죽(高洋粥) 산하에 소속된 통역은 고설창(高說昌)이라는 인물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발해인이 고씨 성을 띠면 무조건 발해의 지배층이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거란국지(契丹國志)』 권26 「발해전」에는 “그 왕은 원래 대(大)를 성으로 삼았다. 유력한 성씨[右姓]는 고(高)·장(張)·양(楊)·두(竇)·오(烏)·이(李) 등 몇 종류에 불과하다. 부곡(部曲)과 노비 등 성씨가 없는 자는 모두 그 주인(의 성씨)을 따른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고씨 성은 유력한 성씨, 즉 귀족의 성씨이기

9 酒寄雅志, 2024, 『渤海と日本』, 吉川弘文館.

특별기고

는 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보자면 국성(國姓)인 대씨(大氏)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오히려 고씨 성은 장·양·두·오·이 등 대귀족[大族]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고씨 성을 가진 자가 발해국의 유력한 일족이기는 해도 반드시 대씨와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고씨 성을 가진 자가 통역으로 일본과의 외교 교섭에 종사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한어를 사용하는 외교 교섭을 담당하는 한편 발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가 통역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수령 고다불의 사례는 특별하다. 말하자면 고씨 성을 가진 자가 언어를 통해 발해국의 외부와 말갈 부족 간의 내부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의 일이나, 금과 북송이 교전을 펼치던 최전선에서 북송 선화(宣和) 7년[금 천회(天會) 3년, 1121] 경원부(慶源府)를 함락한 후의 강화 협상에 북송과의 통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금의 동경유수(東京留守) 자리에 있던 발해인 고씨(高楨)였다. 고정은 금 태조 아골타(阿骨打)를 섬길 때는 여진어를, 북송과의 강화회담에서는 유창한 한어를 구사하며 통역을 맡았다고 알려졌다.¹⁰ 왕일소(王一嘯)는 고씨 성을 가진 발해인이 여진어뿐만 아니라 거란어에도 능통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고구려 이래 계보를 가진 그들이 토착어(통속어)와 한어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도 거의 동시대(1162) 사례로 남송에서 금을 찾은 사신 홍매

¹⁰ 王一嘯, 2022, 「7-12世紀の東北アジア政権における高句麗系渤海人」(國際學術大會「アジア史上の轉換期における社会変動と文化接触」2022.12, 早稲田大学).

특별기고

(洪邁)가 금의 접대를 맡은 거란인 왕보(王甫)에게 들은 이야기를 꼽을 수 있다. 거란의 아이들이 처음 한문을 배울 때는 먼저 통속어의 어법에 따라 원문을 뒤집어서(순서를 반대로) 읽는데, 이 경우 한자(漢字)의 한 글자가 통속어로는 두 글자, 세 글자가 되기도 한다고 귀국 후 보고하고 있다.¹¹ 이른바 한문(漢文)의 훈독(訓讀)이 행해졌다는 것을 전한 기사로, 고씨 성을 가진 발해인이 한어 구어뿐만 아니라 리터러시(문해력)에서도 높은 한어 실력을 전제로 한문에도 능통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발해 사신단이 일본에서 열린 연회 석상에서 교양 높은 고위 관료들과 시문(詩文)을 주고받은 대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¹²

발해의 리터러시와 관련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마치 유럽의 라틴어 성경처럼 한역(漢譯) 경전이 보편어(hieroglossia)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이미 필자는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시기에 범어-한어-신라어(고려어)라는 세 언어 간의 번역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¹³ 이 경우 한역 불교 경전의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한 후 토착 문법에 맞게 재배열하는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남송의 사신 홍매가 목격한 거란의 사례는 바로 신라·고려의 상황과 같다. 발해의 여건도 같았다는 것은 범어 불교 경전이 발해에서 일본으로 전해진¹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발해의 고씨 성

11 김문경, 2023, 『한문과 동아시아』, 성균관대학출판부.

12 일본의 국문학계에서는 발해 사신의 한시(漢詩) 연구에 관심이 높고 그 수도 많으나 한국 학계에서 다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13 이성시, 2023, 『한국 목간 연구의 지평-聖語制(hieroglossia)로 본 한국 목간』, 『목간과 문자』 30.

14 酒寄雅志, 2024, 『渤海と日本』, 吉川弘文館.

“
발해의 고씨 성을 가진 고구려계 사람들은 고구려시대의
한어 회화 능력과 문해력을 갖춘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지위를
점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적
위상에서 볼 때 고구려가 신라의 리터러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

을 가진 고구려계 사람들은 고구려시대의 한어 회화 능력과 문해력을 갖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서의 지위를 점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적 위상에서 볼 때 고구려가 신라의 리터러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신라의 석비(石碑)나 목간(木簡)에서 보이는 변체한문(變體漢文)의 유래를 고구려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논한 바 있다.¹⁵

나아가 이 지역의 민족집단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 양쪽에 미친 상호작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그리스어 고전에서 유래한 고대 문헌이 아바스(Abbās)왕조의 아랍어 번역이 없었다면 근대 서구 문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¹⁶ 문명의 경계에 있는 매개자의 역할은 인류사적 관점에서 결코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매개자란 모름지기 두

15 이성시, 2000, 『발해사 연구에서의 국가와 민족』, 『만들어진 고대』, 삼인출판사; 이성시, 2006, 『漢字受容と文字文化からみた楽浪地域文化』, 早稲田大学アジア地域文化エンハンシング研究センター 편, 『アジア地域文化の構築』, 雄山閣.

16 W. 몬트gomery·워트 저, 三木亘 역, 2008, 『地中海世界のイスラム』, 筑摩書房(원서는 W. Montgomery Watt, *THE INFLUENCE ON MEDIEVAL EUROPE*).

특별기고

세계에 몸을 두려는 성향이 있으며,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적·문명적 관점에서 볼 때 발해의 지리적 위치를 축으로 하는 공간적 파악과 자기 역사적 경험을 축으로 하는 시간적 파악은 이 지역 특유의 하부구조로서 중시해도 좋지 않을까. 중국 여러 왕조의 문명에 인접한 이 지역 특유의 ‘경향성’(Ahmet Davutoğlu)이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경향성을 이 지역의 하부구조 혹은 아흐메트 다우토을루(Ahmet Davutoğlu)를 따라 잠정적으로 상수로 설정하겠다.

4. 발해와 일본의 교류

발해와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교류는 발해 이전 고구려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반면, 발해 이후 요·금·후금(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는 발해사의 특징을 탐구할 때 이 지역의 상수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발해와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교류에 대해서는 멸망기에 이르기까지 사신단의 구성원 수가 105명으로 거의 일정했고 다수의 수령이 합류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⁷ 일본 측이 발해 국왕을 비롯한 사신단 구성원에게 신분에 대응하여 견(絹)제품을 회사(回賜)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발해 사신과 일본 측 고위 관료들 사이에 교역이 실재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¹⁷ 이성시, 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특별기고

구체적으로는 882년 11월 일본 가가국(加賀國)에 도착한 발해 사신 배정(裴頌) 등과 919년 11월 와카사국(若狹國)을 찾은 발해 사신 배구(裴璆) 등의 사례에서 발해 사신이 일본 측 고위 관료와 교역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미 기요히로(石見清裕)는 당의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홍려관(鴻臚館)에서 교관(交關: 교역, 거래)을 하거나 외국 사신이 상대국 공관과 면담·교유하는 등 외국 사신이 상대국과 교역했다는 것을 규명한 후, 일본 도착 후 이루어진 발해 사신의 교역이 당나라 때 행해진 ‘사적(私覲)’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적의 원래 뜻은 ‘나를 만나다’인데, 즉 개인적으로 만나고 면회한다는 것으로, 사신으로 타국에 나갈 때 자국 군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적 의례를 수행하는 것 외에 사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상대국 군주나 신하와 만나 교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을 증여하는 행위라고 한다.¹⁸

발해 사신이 일본에 오면 ‘사적’을 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사료로 입증된 셈이다. 발해 사신 구성원의 과반을 차지했던 수령은 발해국을 구성했던 말갈 부족의 재지 수장이라는 설이 유력하나, 당연히 고다불의 사례처럼 고구려계 수령도 있었다. 발해 사신이 멸망기에도 일본과 이러한 ‘사적’을 포함한 교역을 전개했다는 사실에서 발해 사신이 일본을 찾은 의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교역의 규모도 상상 이상으로 컸음을 짐작

18 石見清裕, 2012, 「唐朝外交における私覲について」, 鈴木靖民 편, 『日本古代の王権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일본 측이 810년에 고다불에게 옛추국의 사생과 습어생에게 발해어를 가르치게 한 목적으로는 발해에서 들어오는 표류민 대책도 추측해볼 수 있으나, 사적과 관련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발해 사신 일행이 왕경 외에도 방문한 지역에서 사적을 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말갈 여러 부족이나 이후 여진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집단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교역 편의성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지배와 통합을 도모하는 발해의 국가 전략을 다카이 야스유키(高井康典行)는 ‘발해적 질서’라 명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나라는 본래 발해의 옛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발해적 질서’를 계승했으나 950년대에 오대십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여진족의 반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 후 요는 우여곡절 끝에 ‘발해적 질서’의 부활 없이 여진족을 재정복하여 자국을 중심으로 한 새 질서 아래 종속시켰다. 이를 볼 때 발해와 일본의 통교가 발해의 국가 통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경시할 수 없다.¹⁹

한편, 발해의 외교 및 교역과 관련해 한국 학계에는 발해와 신라 간에 비록 『삼국사기』 등에서는 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어도 문헌에 전하지 않는 상시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8세기 말 스스로를 흑수국(黑水國), 보로국(寶露國)이라 칭했던 말갈 부족이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한 교역을 신라에 제안한 것처럼, 발해와 신라의 교역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최근 연구에서도 신라가 발해의 침입을 막기 위해 신라 북변에 축조했다고 『신당서(新唐書)』 신라전에 기술한 철관성(鐵關城), 철합관문(鐵合關門)과 같은 군사시설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선총독부 국유림 조사지도>(함경남도 덕원군 부내면·북성면 국유림 경

19 高井康典行, 2016, 「11世紀における女眞の動向」, 『渤海と藩鎮』, 汲古書院; 簗島栄紀, 2019, 「『刀伊襲来』事件と東アジア」, 『金·女眞の歴史とユーラシア東方』, 勉誠出版.

“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발해사 연구의 애로점은 발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특수한 근대적 테두리에서 발해사를 포착하려는
관찰 주체의 자기 중심적 관점에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

계도)와 GIS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²⁰

발해의 국가 존립에서 일본과의 통교와 그에 수반한 교역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사실은, 발해가 자리 잡은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깊이
의 차원”에서 분석할 때 중요한 변수로 계속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발해사 연구의 애로점은 발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특수한 근대적 테두리에서 발해사를 포착하려는 관찰 주체의 자기
중심적 관점에 기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머나먼 과거에 존재했던 발해
국의 역사를 현재 한 특정 국가에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
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한 역사적 대상을 맞지 않는 테두
리에 억지로 밀어 넣어 이해하려다 보니 일종의 ‘시야 협착’에 빠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적 갈등과 인접한 국가 간의 국경 갈등을 어떻

²⁰ 박성현, 2019, 「6~8세기 신라 동북 경계의 변천과 구조」, 『한국학논집』 77; 이
성시, 2024, 「新羅 渤海接境地域の交渉実態をめぐって: 歴史地理研究における
GISの活用」, *WASEDA RILAS JOURNAL* No.11.

특별기고

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지금의 국제적 과제에 뿌리를 둔 발상은 전환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발해사를 광역에서 포착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후루하타 도루(古畑徹)는 서론에서 자신의 발해사 연구를 어떤 지역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질문으로 설정한 다음, 발해사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 가능성으로 일본 학계의 논의 대상인 ‘동아시아 세계론’, ‘동부 유라시아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재검토한 후 발해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틀로 ‘동아시아 세계론’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²¹

또한 이 글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유라시아 규모 면에서도 해당 지역의 중요성이 현대적·근미래적 과제에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일본 학계에서는 ‘동부 유라시아’ 관점에서 전근대의 역사상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업에서는 현대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유라시아 규모로 지역을 확대하여 세계사를 파악하려는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론이라고 할 만한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유라시아 규모의 격변을 시야에 넣는다면 유라시아(유럽+아시아)로부터 그 동부를 세계사 차원에서 포착하려는 시각은 그 설정의의가 커지리라 기대된다.²²

한국사(일국사)의 테두리를 넘어 고구려, 발해, 요, 금, 후금(청)에 이르

21 古畑徹, 2022, 『渤海国と東アジア』, 汲古書院.

22 이성시, 2023, 「東アジア世界論からユーラシア論を望見する」, 『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303.

특별기고

기까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북부,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연해주에 걸친 지역에서 발흥한 발해가 이루어낸 지정학적·문명적 위상을 검토하려는 시각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의 변동과 긴장을 직시할 때 ‘발해사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의의’ 도출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이성시(李成市, Lee, Sung-si)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고대 동아시아사와 한국고대사를 전공했으며,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정년 퇴임하였다. 동아시아의 고대국가 형성과 지역문화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한국목간학회 회장을 맡아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주요 저서로 『만들어진 고대』, 『투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등이 있다.

포커스 |

동북아역사재단과 발해사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의 회고와 전망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발해사 연구를 위한 한중일 사료 엮기,

『발해사 자료총서』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의 회고와 전망

김은국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1.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은 전신인 고구려연구재단 설립 이래 2004~2018년까지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크라스키노(Kraskino) 발해성(이하 크라스키노성)을 직접 발굴해 왔다. 크라스키노성의 발굴 역사는 1980년대부터 러시아과학원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에 대륙연구소가 처음 참여하기 시작하여 이후 고구려연구재단을 거쳐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굴해 온 것이다.

크라스키노성은 이제 40년을 넘어선 발굴 역사가 있다. 2021년 재단에서는 『크라스키노 발해성-발굴 40년의 성과』를 출간하여 그간 한국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성 발굴 성과를 총정리하였다. 필자는 크라스키노성 발굴조사와 보고서 편찬을 담당했던 사업 책임자로서 재단에서 이룬

“
재단 설립 이후 2018년까지 러시아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굴하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한국사임을 입증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에 학술적으로 대응했다.
”

발굴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크라스키노성 발굴 추진 과정

중국은 ‘자국 영토 내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논리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발해 유적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발굴조사 참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연해주에 산재한 발해 유적은 한국 학자들이 공동발굴과 조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크라스키노성이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다.

크라스키노성은 발해 62주(州) 중 하나인 염주(鹽州)의 중심 유적으로 염주성으로 비정한다. 재단 설립 이후 2018년까지 러시아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굴하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한국사임을 입증함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에 학술적으로 대응했다. 공동발굴 결과는 매년 발굴보고서로 출간하였는데, 이는 러시아에 산재한 발해 유적의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문헌사료의 부족을 보강할 수 있어 발해사 연구 심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 유적에 대한 발굴은 1990년대에 한국의 대륙연구소에서 최초로 진행하였고, 2004년부터는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이어왔다. 그리고 고구려

포커스 I

연구재단을 승계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크라스키노성 발굴을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러시아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 연구소와 공동발굴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3년마다 갱신하는 형식으로 1차는 2007년, 2차는 2010년, 3차는 2013년, 4차는 2017년에 체결하였다. 발굴 작업은 협정서에 근거하여 매년 여름 약 한 달간 시행하였다.

재단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추진한 크라스키노성의 획기적 성과는 ‘발해 조기 문화층’과 ‘고구려 시기 층위와 유물’과의 관련 실마리를 확인하여 새로운 크라스키노성 발굴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발굴 과정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돈독한 공동발굴 추진이 기본 틀을 이루었고, 중국, 일본, 나아가 몽골 고고학계에까지 주목을 받았다.

발굴을 시기별로 세 단계로 나누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2년 이전까지 러시아 측의 발굴과 1993년 이후 2006년까지 한·러 공동발굴 기간이다. 이 시기는 러시아 측의 주도하에 한국 측이 참여하였다. 2단계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이 시기는 한국 측이 정식 발굴단을 구성하여 러시아 측과 명실공히 공동발굴을 전개한 과정에 해당한다. 2011년 이후 3단계는 이전의 한·러 양측 발굴 기반 위에 심화와 확장의 이원적인 발굴을 통해 양과 질에서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를 거두었던 기간이다.

그런데 2016년은 재단의 발굴 지원금 송금 방법의 문제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러시아 측 발굴단장인 겔만(E. I. Gelman) 박사와 러시아 연구자들이 송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에 재단은 2017년, 러시아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내 발해연구협의회(The Bohai Studies Society)와의 협약을 통해 송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다시 발굴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크라스키노성 발굴은 필자가 정년 퇴임하기 전 2018년까지 발굴조사를 하였다. 2018년의 조사(7.15~8.15)



크라스키노성 원경(동북아역사재단 발굴단 촬영)

에서는, 성의 북쪽 가운데 부분에 있는 중심 건물군(53구역)과 북서쪽의 사찰 진입로(51구역), 그리고 48구역을 확장 및 심화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53구역에서는 세 동의 건물군(27, 28, 29 주거지)이 드러났고, 51구역에서는 기존 도로 아래에 새로운 도로를 발굴하였으며, 48구역에서는 발해 전체 시기를 보여주는 토층과 저장구덩이 등이 드러났다.

이러한 발굴 성과를 정리하여 재단에서는 2019년까지 12권의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외에 크라스키노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단행본도 발간하였다.

포커스 I



위에서 내려다 본 2018년 크라스키노성 발굴 구역(동북아역사재단 발굴단 촬영)

“

크라스키노성 발굴 성과는 2015년 발굴에 집약되어 나타났다.
그 가장 으뜸은 발굴 사상 처음으로 노출한 발해 전체 시기의 토층을 통해
크라스키노성의 고고학적 역사와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

3. 크라스키노성 발굴의 성과

1993년 이후 지속해 온 크라스키노성 발굴은 이 성의 역사적·고고학적 위상 정립과 발해사 정립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이어진 크라스키노성 발굴조사에서는 발해 지방 성 도시구획의 실마리를 찾고 석축 기단, 건축물 터 등을 확인함으로써 발해 유적 조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조사된 도로 유구는 바로 도시구획에 대한 검증 성격을 지닌 발굴 성과였다. 아직 내성(內城)을 뒷받침하는 발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크라스키노성 발굴 성과는 2015년 발굴에 집약되어 나타났다.

그 가장 으뜸은 발굴 사상 처음으로 노출한 발해 전체 시기의 토층을 통해 크라스키노성의 고고학적 역사와 발해 문화의 고구려 계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특히 토층에서 수습한 20여 점의 목탄을 분석한 결과는 크라스키노성 활용 연대를 발해 이전 고구려 시기부터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는 앞으로 고구려의 동해안 및 연해주 지역에 대한 경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출토된 개별 유물을 살펴보면, 발해 유적 발굴 사상 처음으로 출토된

포커스 I

청동낙타상을 들 수 있다, 이 낙타상은 발해가 크라스키노성을 통해 서역과 교류하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한쪽이 납작한 편병(扁瓶)은 발해와 신라가 해양교류를 하였음을 알려준다. 크라스키노성 내의 도로 유구는 이곳이 도시구획을 지닌 도성이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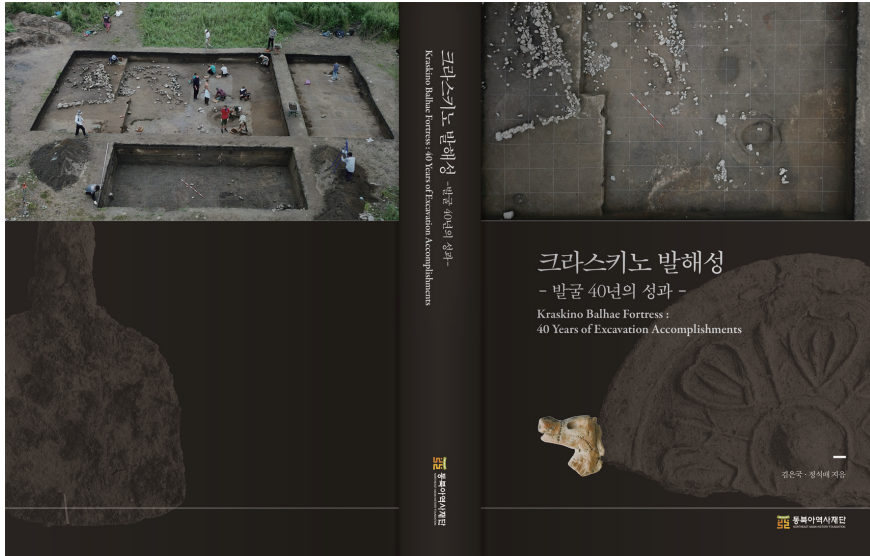
2017년 이후 크라스키노성 발굴 방향은 성의 중심 건물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17년 발굴에서 성내 중심 건물의 기초부와 자갈돌 포장도로를 발굴하였고, 2018년 발굴을 통해 중심 건물군 등을 확인하였다. 이제 염주의 행정 중심 추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과제로 남아 있다.

4. 발굴 종합보고서 출간의 의미

정년 퇴임을 앞두고 2019년에 필자는 2018년 발굴까지를 총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기획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재단이 출간한 『크라스키노 발해성-발굴 40년의 성과』는 그간의 크라스키노성 발굴을 포함하여 그 이전 러시아 학자들의 발굴 성과까지 종합하였다.

이전까지 발간된 크라스키노성 발굴보고서들은 모두 각 해당 연도 해당 발굴구역 단위 조사내용만을 담고 있다. 게다가 한 발굴구역을 발굴 조사 기간에 모두 완료하지 못해 하나의 유구를 여러 시기의 발굴 기간에 걸쳐 조사한 것들도 많다. 그로 인해 특정 유구의 조사내용이 서로 다른 연도의 발굴보고서에 흩어진 상태로 보고된 것들이 많다. 따라서 크라스키노성에서 발굴된 개별 중요 유구나 유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발굴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크라스키노성에서 실시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포커스 I



『크라스키노 발해성 - 발굴 40년의 성과』(김은국·정석배, 2021, 동북아역사재단)

수 있는 종합적인 학술서 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유적의 입지와 발굴 경과, 그동안 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하였고, 크라스키노성의 구획과 배치 문제, 층위와 각 생활면의 상대 및 절대 편년 문제, 유적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유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발굴연도와 발굴구역 단위가 아니라 크게 서북지역, 중북지역, 중남지역, 동문지 일대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중요 유구 중에는 1980년대에 러시아 학자들이 발굴한 성벽과 사원지 등 불교 유물, 2005년에 발굴한 온돌 유구를 비롯하여 2015년에 발굴한 발해 전체 시기를 보여주는 토층이 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도로 유구를 발굴한 결과, 계획 도성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유적 발굴 못지않게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존과 관리이다.
그동안 출토된 크라스키노성 유물을 집결한 독립적인 박물관 건립 등이
국제적 차원의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특히 크라스키노성 발굴조사 성과 중 중요한 것은 기존 5개 생활면에서 2015년의 발굴을 통해 6개 생활면으로 세분되었다는 점이다. 2015년 44구역 서쪽 구역의 토층 전체 노출 결과를 분석한 목탄 방사성탄소연대 분석 결과는 발해 시기 이전 고구려 시기까지 이 성의 사용 연한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출토 유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불교 관련 유물, 지붕 관련 유물, 토제·석제·철제·청동(금동)제·청동-철제 유물, 납·유리·뼈로 만든 유물, 토기·자기와 시유기, 식물 및 동물 유체 등으로 세분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크라스키노성에서 발굴 조사된 모든 생활면, 각 생활면 속 유구, 그리고 출토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유물 각 형식 간의 상대적·절대적인 편년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크라스키노성이 발해의 표지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발해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넓은 면적이 발굴되었으며,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된 데다 상대 편년과 절대 편년이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러므로 발굴 종합보고서 출간은 향후 크라스키노성에 대한 후속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출간 이후 발해사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인용하거나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장구하게 이어온 크라스키노성 발굴은 행정 중심지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크라스키노성은 발해의 표지유적으로서 발해의 역사와 문화 연구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성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적 발굴 못지않게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존과 관리이다. 그동안 출토된 크라스키노성 유물을 집결한 독립적인 박물관 건립 등이 국제적 차원의 논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5. 크라스키노성 발굴 일화

크라스키노성 발굴을 추진하면서 느낀 소회가 많다. 실제 현장 발굴 기간만 보면 7~8월 사이 약 1달 동안이지만, 전후를 살펴보면 1년 내내 준비와 발굴, 보고서 출간 등 연속적인 작업이 이어졌다. 고구려연구재단 사업을 승계한 초기에는 크라스키노성 발굴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름으로 발굴을 시작하려 할 때, 러시아 측은 고구려연구재단의 이사장 아니면 발굴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였다. 먼저 한국 재단 기관장의 정기적인 인사 관행과 아울러 크라스키노성 발굴은 기관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만 했다. 지난 한 설득이 있고서야 재단과의 발굴이 이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1990년대 대륙연구소와 러시아 학자들 간의 친밀한 교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발굴과 관련된 술한 일화는 40년 발굴 여정만큼이나 많다. 2013년에 크라스키노를 포함한 연해주 전체에 강력한 태풍이 덮쳤다. 크라스키노성의 발굴 야영지 역시 그 옆을 지나 바다로 흐르는 강물이 범람하여 발굴단원 모두 마을의 높은 지대에 있는 학교 강당으로 긴급 대피해야만 했다.

그렇게 그해 발굴을 끝내야 하나 하던 차에 밤새 비가 그치고 불어난

포커스 I



크라스키노성 출토 청동쌍봉낙타상
(동북아역사재단 발굴단 촬영, 2015)

토층에서 수습한 20여 점의 목탄 측정 결과와 맨 아래에서 출토된 토기 분석을 통해 크라스키노성은 고구려 때부터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해에 출토된 청동낙타상은 손가락 한 마디 크기에 쌍봉낙타의 모습을 섬세하게 새겨놓았는데, 발해인의 조형감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필자와 발굴단원들은 크라스키노에 서린 안중근 의사의 외침처럼, 크라스키노성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 지면을 빌어 필자와 함께 크라스키노성 발굴에 임하여 준 여러 선생님과 단원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해외 발굴의 힘든 여건에서도 그간 이루어 온 크라스키노성 발굴의 값진 성과는 모두 여러분 덕분이다.

6. 맺음말

2020년 필자의 정년 퇴임은 재단이 추진해 왔던 크라스키노성 발굴사

포커스 I

업의 전환이 되었다. 다만 기존 발굴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의 숨 고르기가 되어야 한다.

크라스키노성 발굴은 러시아(당시 구소련)와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으로의 발굴 방향은 시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1980년 크라스키노성 발굴의 시작은 오직 발해 유적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과 러시아과학원 극동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의 최근 발굴 결과에서는 발해는 물론 그 이전 고구려 시기부터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크라스키노성은 발해사와 고구려사 연구에 모두 표지유적으로 자리하였다.

재단은 바야흐로 크라스키노 발굴의 진정한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크라스키노성 발굴은 발해 유적이 그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발굴 성과를 통해 발해사를 복원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되새길 때이다. 어느덧 40년을 넘은 크라스키노성 발굴 역사를 던지고, 이제는 연해주 지역 한국사 복원이라는 앞으로의 40년 발굴 구상이 필요하다.



김은국(金恩國, Kim, Eun-kuk)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부 전공은 남북국시대, 발해 대외관계사, 발해 멸망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부터 퇴임까지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사업의 책임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대학교와 각급 기관 등에서 발해 역사와 유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고구려발해학회 편집위원 및 학술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발해사 연구를 위한 한중일 사료 엮기, 『발해사 자료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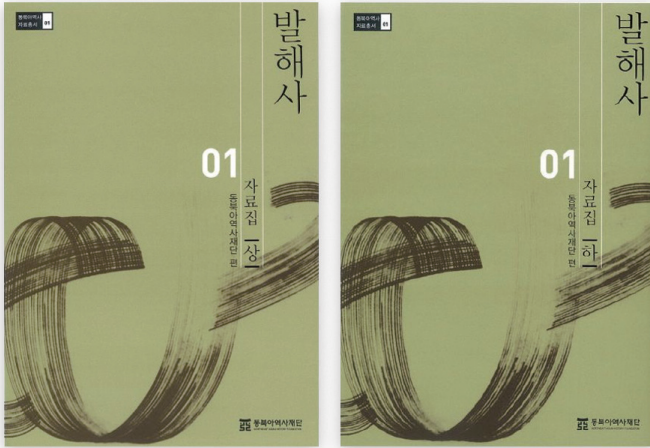
권은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자료총서를 기획하다

역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료이며, 역사학의 기본 방법론은 사료 비판이다. 즉 역사학은 사료가 먼저 있어야 하고, 사료에 대한 역사가의 분석과 해석을 거쳐야만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과거의 사실은 온전히 인간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역사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역사 연구자는 항상 사료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고대사는 다른 시기에 비해 절대적으로 문헌 기록이 부족하다. 그마저 여러 곳에 기록이 흩어져 있으며, 새로운 사료의 발견은 거의 기대할 수 없어 전문 연구자도 역사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전근대 사료는 대개 한문으로 되어 있어,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의 경우 직접 사료를 찾아 읽고 이

포커스 I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한 『발해사 자료집』(상·하)

해하기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고대사 관련 사료 원문을 엮어 자료집으로 내거나 역주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발해사의 경우, 재단의 전신인 고구려연구재단에서 2004년 『발해사 자료집』(상·하)를 간행하였고, 이를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재간행하였다. 그간 한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는 사료가 매우 부족하여 양적·질적 성장이 제한되어 있었다. 『발해사 자료집』은 부족한 사료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에 흩어져 있는 사료를 한자리에 모아 좀 더 쉽게 발해사 사료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자료집은 원문 사료만을 제시하여 한문을 독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주석이 달려 활용도가 있는 자료집이 요구되었다. 마침 필자가 재단에 근

“
2019년부터 학술적이면서도 보다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발해사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해사 자료집』(상·하)에 수록된 한중일 사료 원문을 수정·보완하고
역주한 『발해사 자료총서』 4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

무하게 되면서, 이 과제가 필자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2019년부터 학술적이면서도 보다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발해사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해사 자료집』(상·하)에 수록된 한중일 사료 원문을 수정·보완하고 역주한 『발해사 자료총서』 4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2. 역주서를 편찬하다

『발해사 자료총서』에 수록된 한중일 사료 원문은 『발해사 자료집』(상·하)에 수록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원문의 출처인 사료의 저본과 비교본을 선택하여 서로 대조하여 교감하였다. 기존 자료집에 잘못 수록된 기사는 삭제하고, 오기는 수정하였으며, 누락된 기사는 다시 수록하였고, 번역문에는 사건과 용어를 설명하는 주석을 달았다. 해제는 기존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여 대폭 수정하였다.

첫 번째 작업은 한국사료를 역주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물은 2021년에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권2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한국사료는 모두 42종이다. 사료는 크게 고려시기 사료(총 10종)와 조

포커스 I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 권1·권2, 중국사료 편 권1)

선시기 사료(총 32종)로 나뉜다. 사료의 종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등과 같은 정식 사서류 외에도 『풍암집화(楓巖輯話)』,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와 같은 논설집, 야담집, 문집 등 발해사를 이해하고 우리 선조들의 발해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였다.

두 번째 작업은 중국사료의 역주로, 그 결과물은 2023년에 『발해사 자료총서-중국사료 편』 권1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중국사료는 모두 24종이다. 사료는 크게 황제의 칙명 등으로 편찬된 관찬사료(총 18종)와 개인이 편찬한 사찬사료(총 6종)로 나뉜다. 사료의 성격은 『신·구당서(新·舊唐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기전체와 편년체로 이뤄진 정식 사서류 외에도 『책부원구(冊府元龜)』, 『당회요(唐會要)』, 『전당문(全唐文)』 등 백과전서식 유서(類書), 회요(會要), 병서(兵書), 사행과 포로 견문록, 시문집 등 과거 중국인과 중원을 차지했던 이민족들의 발해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 작업인 일본사료의 역주 결과물 『발해사 자료총서-일본사료 편』 권1은 곧 출판될 예정이다. 이 책에는 모두 26종의 일본사료가 수록되었다. 사료의 종류는 한중 사료와 마찬가지로 편찬 주체에 따라 일본왕(천황)의 칙명 등으로 편찬된 관찬사료(총 11종)와 개인이 편찬한 사료(총 15종)로 나눌 수 있다. 성격에서는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와 같은 편년체의 정사료와 『유취국사(類聚國史)』, 『일본일사(日本逸史)』와 같은 약사(略史)·유서(遺書)·일사(逸史)류 등의 역사서가 있다. 또한 정사(政事)를 다룬 문서 모음과 법령집, 『경국집(經國集)』, 『능운집(凌雲集)』,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같은 한시집, 기행일기, 설화집, 군담소설 등 발해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일본사료에는 발해인이 쓴 외교문서와 시문이 다수 남아 있어 당시 발해의 외교와 문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활용하고 되새기다

발해 스스로가 남긴 역사서는 전무하며, 발해와 관련된 기록은 동시대에 관계를 맺었던 주변국의 역사 기록에, 그리고 후대의 역사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발해는 수수께끼의 역사로 여겨지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료에 남은 기록은 발해의 정치·외교·문화·경제·풍속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결국 『발해사 자료총서』는 단순히 역주서의 출판이라는 하나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수께끼의 역사인 발해사를 복원하고 어떻게 올

“

『발해사 자료총서』는 단순히 역주서의 출판이라는 하나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수께끼의 역사인 발해사를 복원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할 것인지 연구하기 위한 길라잡이이며, 발해사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되새김해야 할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바르게 인식할 것인지 연구하기 위한 길라잡이이며, 발해사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되새김해야 할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발해사 자료총서』에 수록된 사료를 어떻게 되새길 것인지는 개별 연구자와 일반 독자의 몫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언급하고 싶다. 바로 전근대 사료는 모두 발해를 고구려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인식했고, 발해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본 시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발해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과 중국이 크게 대별되는데, 당연히 한국은 한국사의 체계에서만, 중국은 중국사의 체계에서만 발해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원인의 하나는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의 종족 계통과 발해국 자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료들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고 오해하였기 때문이다. 『구당서』와 『신당서』가 대표적이다. 발해를 한국사로 보려는 쪽에서는 대조영을 “본래 고려¹의 별종(別種)”이라고 한 『구당서』를, 중국사로 보려는 쪽에서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이면서 고려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한 『신당서』를 더 중시했다.

1 고구려 후기의 국명은 ‘고려(高麗)’이지만, 왕건이 세운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려’라고 한다.

“
한국사료에서는 발해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사의 체계에서 발해를 재인식하고 유득공의 『발해고』에 이르면
신라와 동등하게 인식하여 남북국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중국사료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시종일관 발해를 중국사
(또는 중원 역사)와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이미 한국 학계에서는 두 기록이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발해가 그렇듯 고구려 역시 영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여러 주민 집단을 아울러 다종족국가를 이루었다. 대조영은 속말말갈 계통이지만 그 선조가 일찍이 고구려인이 되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변경지역인 영주(營州: 현재 朝陽)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696년 거란 이진충(李盡忠)의 반란을 계기로 당의 지배에 저항하며 요동 지역의 천문령(天門嶺)에서 당군을 무찌르고 698년 건국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사료에서는 발해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사의 체계에서 발해를 재인식하고 유득공의 『발해고』에 이르면 신라와 동등하게 인식하여 남북국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²

그런데 중국사료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시종일관 발해를 중국사(또는 중원 역사)와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해사 자료총서-중국사료 편』의 사료 가운데 대조영과 발해의 계통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은

2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발해사 자료총서-한국사료 편』(2021)의 「서문」과 『뉴스레터』(2022년 1월호)의 「한국 사료로 읽는 발해사 이야기」 참조.

12종이다. 이 가운데 무려 9종의 사료에서 그 계통을 ‘고려 별종’, ‘부여 별종’으로 표시하였다. 특히 『책부원구』는 종족(種族)·토풍(土風)·계습(繼襲)·원수(怨讎) 편에서 여러 차례 고구려의 별종임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조영과 발해의 계통에 대한 중국사료의 기본 인식인 것이다. 『신당서』 등 세 종의 사료는 ‘속말말갈’이라고 하였지만 ‘고려에 부속’되었다고 하여 고구려와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대조영의 건국 과정은 모두 고구려 멸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과관계를 그리고 있다.

한편, 전근대 중국사료는 현재 중국에서 주장하는 대로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지 않았다. 발해 건국 자체에 대해 “자립하여 진국왕이 되었다”, “건국하여 스스로 진국왕이라고 불렀다”라는 등 독립국가로 세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발해를 고구려·신라·백제·고려·조선 등과 같이 중국과 교류했던 이민족 국가나 세력을 기록한 사(四夷)열전 또는 외국열전에 수록하였다. 『구당서』 「지리지」에는 신라와 함께 발해를 “이역(異域)”이라고 하였고, 당 황제인 애제는 발해를 직접 “외국의 먼 오랑캐(外國遠戎)”라고 하였다(『책부원구』 「발호령 5」).

즉, 중국사료는 시종일관 발해를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봤고, 당의 지방이나 복속국이 아닌 독립국가로 보았다. 당연히 외국으로 인식한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예를 표방했던 고려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과 일본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고 해서 발해사를 한국사에서만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사는 전통적으로 한족(漢族)이 주체가 된 중원 왕조를 중심으로 이해해 왔지만, 현재 중국은 56개 다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변경지역의 역사를 지방

“
이제 발해사를 둘러싸고 ‘누구의 역사인가’ 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발해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실체에 대한 논쟁이
보다 활성화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사료로 회귀하는 것이 정답이다.
”

정권으로 주장하며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같이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성을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만, 우리 민족과 함께 발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족의 역사적 지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발해사는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이뤘던 한국사의 일부이지만, 현재 중국인이 된 만주족과 공유하는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발해사를 둘러싸고 ‘누구의 역사인가’ 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발해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실체에 대한 논쟁이 보다 활성화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사료로 회귀하는 것이 정답이다. 『발해사 자료총서』의 출판은 그런 점에서 발해사 연구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한 시기 적절한 작업이었다고 자평해 본다.

4. 남긴 숙제를 고민하다

필자는 개인 연구도 그렇지만, 연구사업을 끝내고 나면 성취감보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 『발해사 자료총서』 한국·중국·일본 사료 편 역시 그렇다. 짧은 연구 기간과 4~5명에 불과한 연구 인력 및 부족한 예산 등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

포커스 I

기에는 궁색함을 느낀다.

여하튼 역주서 자체로서의 문제를 먼저 고백하자면, 첫째는 발해사 관련 사료를 모두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 사료 편을 상하가 아닌 권1·권2로 구분한 것은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료를 계속 추가하여 출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주석에 한중일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와 같은 중요한 사서의 역주서가 여럿 존재하듯, 그리고 첫 역주서가 이후 역주서의 발전과 학술연구의 거름이 되었듯 『발해사 자료총서』 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2000년대 들어 국내와 중국, 일본에서 한국고대사 관련 묘지명·목간·종이·전돌과 토기류 등에 새겨진 문자자료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켰다. 발해사와 관련된 문자자료는 1990년대에 출판된 『역주 한국고대금석문』과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Ⅲ』, 2015년에 출판된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등에 수록되어 있다.³ 대표적으로 발해 3대 왕인 문왕의 두 딸 정혜·정효 공주의 묘비, 허왕부(許王府)명이 나오는 불비상(佛碑像), 발해 유민 장행원 묘지명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문자자료도 꽤 있다. 이들 문자자료는 기존 사료와 함께 새로운 발해사 연구와 발해 전사(全史)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자자료 편’의 출판이 『발해사 자료총서』의 남은 숙제가 되었다.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신라·발해 편)』; 국사편찬위원회, 1996,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Ⅲ(통일신라·발해 편)』; 박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2015,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포커스 I

마지막으로 사료는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재료이다. 역사가는 남겨진 사료에 대한 비판 과정을 통해 역사를 복원하고 재해석하여 다시 후대에게 기록으로 남긴다. 따라서 역주사업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이를 활용한 심화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발해사 자료총서』에 참여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한중일 사료를 통한 발해사 심화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발해사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발해사 자료총서』 윤독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권은주(權恩珠, Kwen, Eun-ju)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경북대학교에서 한국고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북대학교 계약교수, 대구사학회 총무이사, 고구려발해학회 기획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공저),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공저), 『해동성국, 고구려를 품은 발해』(공저),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공저) 등이 있다.

포커스 II

인물로 본 발해

대조영의 출신과 건국지 논쟁

임상선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대무예와 대문예 형제

윤재운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발해 정혜공주·정효공주의 묘와 묘지

박유정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고려인이 된 발해인

박순우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유득공과 『발해고』

김종복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조영의 출신과 건국지 논쟁

임상선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고구려 멸망 후 30여 년이 지나 대조영[고왕(高王), 재위 698~719]이 고구려의 옛 땅에 발해를 건국하였다. 오늘날 발해사 연구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주제 중 하나가 건국자 대조영에 대한 해석이다. 대조영의 출신이 어디인지 혹은 발해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디에 건국되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발해는 200여 년 이상을 존속했지만, 발해인 자신이 남긴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부분 당, 일본, 그리고 신라 쪽에 발해와 교류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서도 발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의견을 달리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1. 발해 건국

정사(正史)는 동아시아 각 왕조가 정통으로 인

포커스 II

정하여 편찬한 역사책이다. 발해는 중국 정사 중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처음으로 실려 있다. 『구당서』는 당의 실록 등을 참조하여 후진(後晉)의 유구(劉昫, 888~947)가 945년에 편찬한 사서이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는 과정을 『구당서』 발해열전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발해는 말갈(靺鞨)이며, 대조영은 본래 고려별종(高麗別種)이다. 고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족(家屬)을 이끌고 영주(營州)로 옮겨와 살았다. 만세통천 연간에 거란(契丹)의 이진충(李盡忠)이 반란을 일으키니, 조영은 말갈(靺鞨)의 결사비우(乞四比羽)와 함께 각각 거느리고 동쪽으로 망명하여 요충지를 차지하고 스스로 굳혔다. 진충이 죽자, 측천(則天)이 우옥검위대장군 이해고(李楷固)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 남은 무리를 토벌하도록 명하니, 먼저 결사비우를 무찔러 베고, 또 천문령을 넘어 조영을 압박하였다. 조영이 고려와 말갈의 무리를 합하여 해고에게 항거하자, 당의 군사가 대패하고 해고만 탈출하여 돌아왔다. 마침 거란과 해(奚)가 모두 돌궐(突厥)에게 항복을 하여 길이 막혀서 측천은 토벌할 수 없었다. 조영이 마침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桂婁)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東牟山)에 웅거하여 성을 쌓고 살았다. 조영이 용맹스럽고 용병(用兵)을 잘 하니, 말갈의 무리 및 고려의 남은 무리가 점점 돌아왔다. 성력(聖曆) 중에 스스로 진국왕(振國王)에 올라 돌궐에 사신을 보내어 통하였다.

『구당서』 권199하, 열전 제149하, 복적, 발해

위 기록에서 ‘고려’는 ‘고구려’이고, ‘계루’는 고구려 5부의 하나이다. 대조영이 가족을 이끌고 영주[오늘날 요령성 조양(朝陽)]로 옮겨온 시기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였다. 만세통천은 측천무후(則天武后, 재위 690~705)

“
‘발해’는 당이 대조영을 책봉할 때 사용한 명칭이며,
대조영이 자칭한 국명은 ‘진국’이었던 것이다. 그 시기인 성력은
측천무후가 698년부터 700년 초까지 사용한 연호인데,
다른 기록에 의해 698년이 발해가 건국된 연도임이 밝혀졌다.
”

가 696년에서 697년에 사용한 연호인데, 이때 거란인 이진충이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이 말갈인 걸사비우와 함께 동쪽으로 달아났다는 것은 대조영이 말갈인이 아닌 고구려인임을 시사한다. 이해고의 추격을 물리치고 계루의 옛 땅을 차지한 대조영은 동모산에 성을 쌓고 성력 중에 스스로 진국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발해’는 당이 대조영을 책봉할 때 사용한 명칭이며, 대조영이 자칭한 국명은 ‘진국’이었던 것이다. 그 시기인 성력은 측천무후가 698년부터 700년 초까지 사용한 연호인데, 다른 기록에 의해 698년이 발해가 건국된 연도임이 밝혀졌다. 『구당서』는 이어지는 기록에서 선천 2년(713) 대조영을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책봉하였으며, 현종(玄宗, 재위 712~756) 때인 개원 7년(719) 조영이 사망하자 현종이 사신을 보내 조문했다고 한다.

2. 대조영의 출신

대조영의 출신에 대하여 『구당서』 발해전이 “발해는 말갈이며, 대조영은 본래 고려별종(渤海靺鞨, 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이라고 한 반면, 『신당

서』 발해전은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어 있던 자이며, 성이 대씨(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라며 달리 기록하고 있다. 당의 역사를 기록한 또 다른 정사인 『신당서』는, 오대십국의 혼란을 정리하고 건국한 북송(北宋)이 『구당서』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며 1060년경 구양수(歐陽修, 1007~1072)와 송기(宋祁, 998~1061) 등으로 하여금 편찬케 한 사서이다. 특히 영주사마(瀛州司馬) 신분의 장건장(張建章, 806~866)이 834년 9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발해 수도인 상경(上京)을 방문하고 돌아와 저술한 『발해국기(渤海國記)』를 참조함으로써 『신당서』에는 『구당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당서』의 발해 연혁 설명에서 언급된 속말말갈은 말갈의 한 부락이다. 말갈은 기원전 숙신(肅愼)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대가 지나며 읍루(挾婁), 물길(勿吉)을 거쳐 수와 당 시기에 말갈로 불리고 있었다. 말갈은 7개 부락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송화강(松花江) 유역에 거주하던 속말말갈이었다.

『구당서』 발해전이 발해의 건국자(대조영)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신당서』는 발해를 건국한 집단(왕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구당서』나 『신당서』 모두 발해를 건국한 자 및 건국한 집단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대조영은 고려별종이고, 이 고려별종이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어 있던 자라는 의미이니, 대조영 개인뿐 아니라 대조영이 속한 집단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당서』 발해전은 발해는 고려별종이 중심이 되고, 그 후 말갈인과 고구려인이 참여하여 건국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발해가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연합하여 건국하였음은 『유취국사(類聚國史)』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포커스 II



대조영 영정(권희연 작, 2012년 지정,
189×107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발해국은 고려의 옛 땅이다. … 대조영이 처음 발해국을 세웠고… 그 나라는 넓이가 2,000리이고 주현관역(州縣館驛)이 없고 곳곳에 촌리(村里)가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다. 그 백성(百姓)은 말갈이 많고 토인(土人)이 적고, 모두 토인을 촌장(村長)을 삼으니, 큰 촌은 도독(都督), 다음은 자사(刺史), 그 아래는 백성들이 모두 수령(首領)이라 한다.

『유취국사』 193, 수속부(殊俗部) 발해(渤海)상, 연력 15년 4월 무자조

“
중국 정사인 『구당서』 발해전은 발해는 고려별종이 중심이 되고,
그 후 말갈과 고구려인이 참여하여 건국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 『유취국사』는 발해의 백성이 고구려인과 말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한다. 한편 한국 역사 속에서는 발해를 대체로
고구려 후예들이 건국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유취국사』는 892년, 일본 육국사(六國史)의 내용을 검색이 쉽도록 항목별로 분류하여 재편집한 역사서인데, 그중 발해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발해는 고구려 옛 땅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이고,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발해의 백성, 즉 주민이 말갈과 토인이며, 토인이 촌장이라는 의미이다. 고려의 옛 땅에 살고 있는 토인은 바로 고구려인이다. 『유취국사』는 발해의 백성이 고구려인과 말갈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 역사 속에서는 발해를 대체로 고구려 후예가 건국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라 말 최치원(崔致遠, 857~908?)은 지금의 발해가 지난날 고구려라 하고, 한편으로는 속말말갈이라고도 했으나, 고려시대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최치원열전에서 “고구려의 잔존한 무리가 모여 북쪽으로 태백산(太白山) 아래에 의지하여 나라 이름을 발해라 하였다”고 하였다. 일연(一然, 1206~1289)도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고려의 옛 장수인 조영의 성은 대씨인데, 잔여 병사를 모아 대백산(大伯山) 남쪽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신라고기(新羅古記)를 인용하였다(『삼국유사』, 말갈발해조). 여기서 태백산 혹은 대백산은 백두산을 가리킨다. 1485년에 편찬되어 조선의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준 『동국통감(東

『國通鑑』은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니, 곧 고구려 별종”이라고 하였는데 (『동국통감』 권제10, 「신라기」 성덕왕 12년), 속말말갈 부분은 『신당서』 발해전, 고구려별종 부분은 『구당서』 발해전의 내용이다. 『동국통감』도 『구당서』와 『신당서』 발해전의 대조영 출신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발해 건국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곳은 어디일까. 『구당서』 발해전은 계루고지(桂婁故地)의 동모산(東牟山)이라 하고, 『신당서』는 읍루고지(挾婁故地)의 동모산이라 기록하고 있다. 계루는 고구려 5부 중 하나이니, 고구려의 옛 땅이고, 읍루는 말갈의 별칭이며 고구려 중심인 5부 이외의 장소이다. 말갈의 7개 부락 중에는 고구려에 신속된 백산말갈(白山靺鞨)이나 속말말갈이 있고, 고구려 지배 밖에 있던 흑수말갈(黑水靺鞨) 같은 집단도 있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발해 건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말갈로 묘사된 속말말갈 집단은 고구려 영역 내에 있었고 고구려인이었다. 계루고지와 읍루고지는 고구려의 중심지역인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이었다. 또한 『구당서』가 발해 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신당서』가 9세기 중반 이후의 발해 상황을 묘사한 점에서 계루고지는 발해 초기의 수도가 있던 곳이고, 읍루고지는 발해 후기의 수도가 있던 곳을 암시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동모산은 고정된 장소일 수도 있지만, 발해 왕성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용어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은 중국 길림성 돈화시(敦化市) 일대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 통설이었다. 1949년 연변대학이 돈화시

남쪽의 육정산(六頂山)고분군에서 발해 3대 문왕(文王, 재위 737~793)의 둘째 공주인 정혜공주(貞惠公主, 737~777)의 무덤을 발굴한 것이 주요 계기였다. 정혜공주묘지문에는 공주가 “진릉(珍陵)의 서쪽 언덕”에 매장되었다고 하였다. 이 진릉이 고왕 대조영 혹은 2대 무왕(武王, 재위 719~736) 대 무예(大武藝)의 무덤이라면, 왕릉이 있는 돈화시가 발해가 건국된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이 육정산고분군 인근의 성산자산성(城山子山城)이고, 당시의 도성유적을 육정산고분 남쪽의 영승(永勝)유적 혹은 돈화 시내의 오동성(敖東城)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활발해진 고고학 발굴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적에서 8세기 중엽 이른바 ‘현주(顯州)’로 천도하기 전까지 발해의 국력에 부합하는 고고학 성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80년에 문왕의 넷째 공주인 정효공주(貞孝公主, 757~792)의 묘가 길림성 화룡시(和龍市) 용두산(龍頭山)에서 발견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정효공주묘 주변 지역에 대하여 추가 발굴을 한 결과, 새로운 발해 무덤이 다수 발견되면서 발해 건국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7~11월, 그리고 2005년 6~11월까지 발굴한 결과, 4년이 지난 2009년에 용두산고분에서 두 기의 발해 황후릉이 발굴되었다는 ‘간단한 보고(簡報)’가 공개되었다.¹ 다른 시기보다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전례가 없는 발해 황후릉의 발굴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문왕의 비인 효의황후(孝懿皇后)의 능과 7대 간왕(簡王, 재위 817~818)의 비인 순목황후(順穆皇后)의 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가 건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管理委员会办公室, 「吉林和龙市龙海渤海王室墓葬发掘简报」, 『考古』 2009-6.

포커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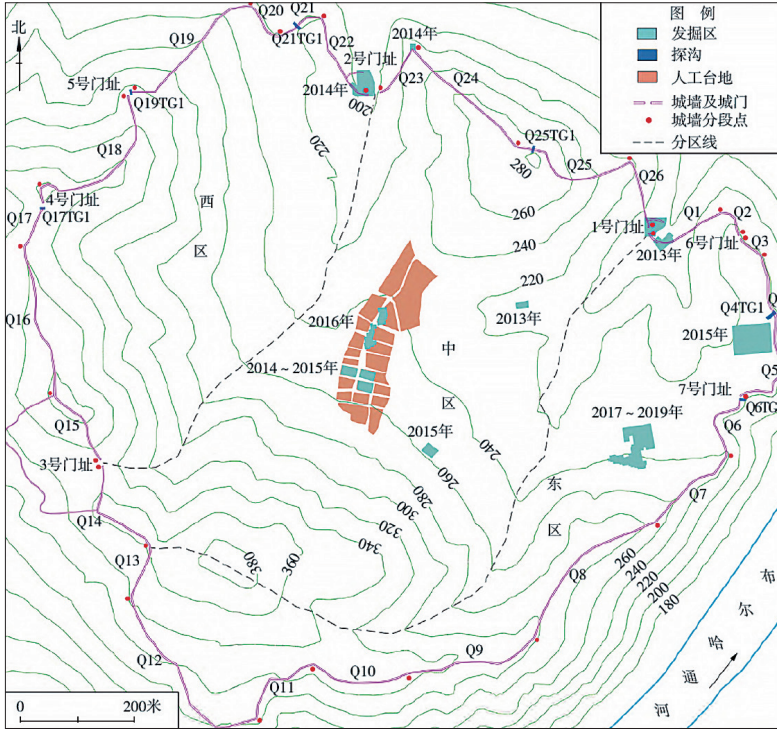


마반촌산성 위치도(『考古』 2023-1, 52쪽)

국된 곳이 둔화가 아니라 화룡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하여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 위치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되었는데, 그 핵심은 동모산유적으로 유력하게 부상한 마반촌산성(磨盤村山城)에 대한 검증이다. 마반촌산성은 성자산산성(城子山山城)이라고도 하며,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圖門市) 장안진(長安鎮) 마반촌 남쪽 약 2km에 있으며, 서쪽으로 연길시(延吉市)가 5km 이내이고, 유적

포커스 II



마반촌산성 지형 및 연도별 발굴구역 위치도(『考古』 2023-1, 51쪽)

의 동·남·북 3면은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가 감싸고, 해란하(海蘭河)가 유적의 동남쪽에서 들어와 부르하통하로 들어간다. 성터의 중심 좌표는 북위 42°54'59.3", 동경 129°36'59.9", 해발 256m이다. 향아리 형태의 독립된 산 위에 산세를 따라 축조되었으며 길이는 4,549m이다. 돌로 쌓은 성벽 중 현존 최고 높은 곳은 4m 이상이고, 성문이 7개이다. 유적은 일찍이 1940년대에 발견되어, 2006년 중국의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가 되었다.

최근 발표된 발굴 결과에서는 산성 성벽과 중점구역의 발굴을 통하여 산성에 모두 7개 성문, 성벽이 조만(早晚) 두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확인하고, “Q21의 성벽 바깥 도랑 안의 목탄(木炭)에 대한 탄소14측정데이터에 근거한 성벽의 최초 건축 연대는 656~727년간으로 추단한다. 만기(晩期) 성벽 내의 목탄 탄소14측정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150~1250년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의 고고 증거로 볼 때, 산성 중구(中區)의 표토층에서 출토한 봉조문와당(鳳鳥紋瓦當)과 육정산발해고분군에서 출토한 와당이 매우 유사하고, 산성에서 출토한 새끼무늬·격자무늬 판와(板瓦)는 동북지구에서 6~8세기 일부 산성과 무덤에서 발견되며, 각획문자(刻划文字)와 부호가 있는 통와(筒瓦), 팔판연화문(八瓣蓮花紋)와당은 환도산성(丸都山城)에서 출토한 같은 종류의 유물에 더욱 가깝다”고 하였다.²

2021년 마반촌산성 북구(北區)의 조기(早期)유적에 대한 발굴 결과도 산성 동구(東區)의 조기 건축군의 사용연대와 마찬가지로 7~8세기라고 발표했다.³

요컨대, 마반촌산성의 조기 유적 출토 유물이 집안시(集安市)의 고구려 환도산성과 돈화시의 발해 육정산고분의 것과 유사하다며, 그 시기를 6~8세기로 편년하고 “마반촌산성 조기(早期) 유존(遺存: 유적·유물)의 문화특징·지리환경·연대구간 모두 발해국 동모산성(東牟山城)에 부합하니, 동모산성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⁴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 「吉林图们市磨盘村山城遗址2019年调查与发掘」, 『考古』 2023-1, 63쪽.
- 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浙大城市学院·延边朝鲜族自治州文物保护中心, 「吉林图们市磨盘村山城遗址2021年北区发掘简报」, 『北方文物』 2023-1, 37쪽.
- 4 冯恩学·安文荣, 「磨盘村山城早期遗存研究」, 『考古』 2023-9, 119쪽.

“
마반촌산성의 조기 유적 출토 유물이 집안시의 고구려
한도산성과 돈화시의 발해 육정산고분의 것과 유사하다며,
그 시기를 6~8세기로 편년하고 “마반촌산성 조기 유존의
문화특징·지리환경·연대구간 모두 발해국 동모산성에 부합하니,
동모산성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

이렇게 문헌뿐 아니라 고고 발굴 결과를 통해서도 용두산고분군이 발해 왕실무덤군이고, 마반촌산성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으로 비정됨에 따라 화룡·연길·혼춘이 발해의 핵심지역이었음이 드러났다. 발해는 고구려 옛 땅에 ‘고려별종’인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계 주민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임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임상선(林相先, Lim, Sang-sun)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한국 및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국가와 민족, 집단 간의 상호 인식에 대하여 연구를 하며, 우리역사문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무예와 대문예 형제

윤재운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대무예와 대문예는 누구인가

대무예(大武藝)와 대문예(大門藝)는 형제로, 발해의 왕족이다. 대무예는 발해의 제2대 왕인 무왕(武王)으로 재위 기간은 719~737년이다. 그는 발해국의 건국자 대조영(大祚榮, 高王)의 아들이다. 713년(고왕 15)에 당이 고왕을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책봉할 때, 대무예도 같이 계루군왕(桂婁郡王)으로 봉하였다. 대무예는 719년 3월에 고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인안(仁安)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세우고 영토를 크게 넓히는 등 발해국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대문예는 시조 고왕 대조영의 둘째 아들이며 무왕 대무예의 친동생이다. 당이 종종 초기에 장행급(張行岌)을 보내어 대조영을 초유했을 때 동행해 숙위로서 머물고 있다가 당 현종(玄宗, 재위 712~756) 때인 개원(開元) 초에 돌아왔으므로 당의 정세에 밝았다.

2. 당의 흑수주 설치와 지배층의 갈등

722년 송화강(松花江) 하류에서 흑룡강(黑龍江) 유역에 걸쳐 거주하던 흑수말갈(黑水靺鞨)이 독자적으로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자, 당은 그곳에 흑수주(黑水州)를 설치하고 장사(長史)를 두어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는 흑수말갈이 외교관계를 취할 때 발해의 사전 양해를 얻었던 전통을 파기한 것이었다.

흑수말갈은 당에 접근하기 이전에 돌궐(突厥)에 토둔(土屯)을 요청하였다. 토둔은 돌궐이 복속시킨 종족에게 설치한 관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흑수말갈은 발해에 먼저 통보하고 함께 돌궐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즉 말갈부족과 당의 교류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발해는 흑수말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수말갈이 독자적으로 당과 결탁한 이유는 돌궐이 발해의 세력 확장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당은 돌궐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거란(契丹)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717년 영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였는데, 이 당시 돌궐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거란 역시 돌궐 진영으로 돌아섰다. 이에 거란 토벌을 포함한 동북 방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해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발해의 배후에 있던 흑수말갈에 기미주(靺廝州)를 설치하여 발해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왕은 흑수말갈이 당과 공모해 앞뒤에서 발해국을 공격하려는 심산으로 단정하고, 아우인 대문예 등에게 군대를 이끌고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흑수말갈이 단독으로 당에 관리를 요청한 사실은 이들이 발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다른 말갈

“
당에 숙위로 머물다 돌아온 대문예는 형인 무왕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무왕 대무예와 대문예의 의견 차이는 당시 발해 지배층이
대당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무왕과 대무예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졌음을 의미한다.
”

제부(諸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해로서는 간과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당에 숙위로 머물다 돌아온 대문예는 형인 무왕의 정책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무왕 대무예와 대문예의 의견 차이는 당시 발해 지배층이 대당 외교노선을 둘러싸고 무왕과 대무예로 대표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기 당은 돌궐과 대립하고 있었다. 발해는 초기에는 당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궐과 친선을 도모하였고, 당과 국교를 맺은 이후에도 돌궐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왕이 대당 강경책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돌궐 및 거란과의 제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3. 대문예의 망명과 외교전

발해 지배층 내부에서 외교노선의 차이는 726년 무왕이 흑수말갈 토벌을 감행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무왕은 아우인 대문예와 그의 외삼촌인 임아(任雅)로 하여금 군사를 징발하여 흑수말갈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으나, 문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반대하였다.

포커스 II

흑수가 당의 관리를 청한다고 해서 친다면 이것은 당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당은 사람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기로 우리보다 만 배가 넘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를 지게 되면 자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옛날 고구려의 전성 시기에 강병 30만 명으로 당과 대적하면서 복종하지 않다가 당의 군사가 한번 들이닥쳐 모두 쓸어 없애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발해는 백성이 고구려보다 몇 배나 적는데 당을 등지려고 해서는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무왕은 크게 노해 사촌 형 대일하(大壹夏)로 하여금 사령관을 교체하고 대문예를 소환해 죽이려 하였다. 이에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하고, 당은 그에게 좌효위장군(佐驍衛將軍)이라는 직책을 주었다. 이에 무왕은 흑수말갈의 토벌과 망명한 대문예의 송환을 당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무왕이 대문예의 송환 및 처벌을 요구하자, 당은 일단 발해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를 유배보냈다고 거짓으로 통고하였다. 당의 거짓은 곧 발각되었고 무왕은 재차 당에 항의하였다. 이에 당은 기밀 누설의 책임으로 담당 관리를 좌천시키고 대문예를 유배보냈다. 이처럼 발해의 요구에 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명분상 수세에 몰려 있었다.

그런데 732년 7월에 당 현종(玄宗)이 무왕에게 보낸 칙서에서 당의 태도는 일변하였다. 당은 형제지간의 우애라는 명분에서 대문예에 대한 처벌 요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발해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무력 응징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당이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이 다시 흑수말갈과 결탁하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왕의 큰아들인 대도리행(大都利行)이 당에 숙위로 있던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
무왕의 아들과 그의 동생인 대문예가
서로 차기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문예의 망명은 왕위를 둘러싼 ‘싸움(전쟁)’에서
패배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

728년 1월에 흑수말갈이 사신을 파견하자, 당은 흑수말갈의 추장에게 이헌성(李獻誠)이라는 중국식 성명을 내려줌과 동시에 운휘장군(雲麾將軍) 겸 흑수경략사(黑水經略使)를 제수하고, 당의 관리인 유주도독(幽州都督)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726년에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당이 다시 흑수말갈과 결탁함으로써 발해는 대외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728년 4월에 사망한 대도리행은 720년 계루군왕에 봉해진 발해의 왕위계승자였다. 왕위계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필연적으로 왕위계승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신당서(新唐書)』 오승체(烏承玘)열전에서 ‘전국중(戰國中)’에 대문예가 당에 왔다고 하였다. 무왕과 문예가 발해 내에서 ‘싸움(전쟁)’을 하다가 문예가 왔다는 의미이다. 이 싸움은 흑수문제를 둘러싼 의견 다툼이 원인인 듯이 기술하고 있지만, 또 다른 요인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당시 발해에서 국가의 존망이 좌우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 즉 왕위를 둘러싼 알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왕의 장자인 대도리행이 당에 숙위로 있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발해의 왕위는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형제 상

속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도리행의 죽음은 무왕 이후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지 논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무왕의 아들과 그의 동생인 대문예가 서로 차기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문예의 망명은 왕위를 둘러싼 ‘싸움(전쟁)’에서 패배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4. 발해의 당 공격, 그 후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732년(무왕 14) 9월 발해가 등주(登州)를 공격하여 그곳의 자사(刺史)였던 위준(韋俊)을 죽였다고 한다. 사실 발해와 당 사이의 갈등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720년(무왕 2) 거란을 토벌하자 당의 제안을 발해의 무왕 대문예가 거절하였고, 당은 이런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726년(무왕 8) 발해의 배후에 자리한 흑수말갈을 기미주로 삼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발해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흑수말갈을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는 당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하다가 끝내 당으로 망명하였다. 무왕은 대문예의 송환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당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와중에 무왕의 큰아들인 대도리행이 급작스레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렇듯 당시 발해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따라서 무왕은 등주를 공격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732년 9월 발해가 등주를 선제 공격하자 『구당서』에는 좌령군장군(左領軍將軍) 개복순(蓋福順)이 군사를 일으켜 이에 대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일시적인 반격에 지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응은 그

“
무왕이 등주를 공격하는 등 대당 강경책을 구사한 배경에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하여 당에 대항하고자 했던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

이듬해 봄부터 시작되었는데,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신당서』 오승체열전 등에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전한다.

733년 당 현종은 대문예를 유주(幽州)로 보내 발해를 공격하게 하는 한편,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가 발해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게 하는 협공작전을 구사하였다. 『신당서』 오승체열전에 따르면 당과 신라 군사의 합은 1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당과 신라의 협공작전은 추운 날씨와 좋지 않은 도로 사정 탓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당과 신라의 협공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무왕은 대문예에 대한 원망을 그칠 줄 몰랐고, 마침내 자객을 보내 대문예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마도산(馬都山)을 공격하는 등 여전히 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처럼 발해가 당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였던 이면에는 거란이 돌궐과 함께 당을 공격하던 당시의 정세가 작용하고 있었다. 즉 당은 거란·돌궐 등과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해 역시 이들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당에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실제 중국 송대에 간행된 『문원영화(文苑英華)』에는 734년 4월 당이 거란을 격파한 후 작성한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거란이 돌궐 및 발해와 제휴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던 중 734년 비가가한(毗伽可汗)의 사망으로 돌궐이 붕괴하기 시작

포커스 II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거란이 당에 복속하였다. 이 무렵 신라도 단독으로 발해를 공격하는 등 국제 정세가 발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발해는 무왕 즉위 이래 견지해 오던 대당 강경책을 포기하고 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요컨대 무왕이 등주를 공격하는 등 대당 강경책을 구사한 배경에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적절히 이용하여 당에 대항하고자 했던 의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문예의 당 망명과 무왕의 왕위계승권자였던 대도리행의 죽음으로 인한 국내적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재운(尹載云, Yun, Jae-woon)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남북국시대 무역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8~10세기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양상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고구려연구재단 및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역사교육학회 회장, 고구려발해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발해 정혜공주·정효공주의 묘와 묘지

박유정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1. 발해 공주의 무덤이 발견되다

중국 길림성(吉林省) 둔화시(敦化市) 남쪽 5km 지점에 위치한 육정산(六頂山)에는 발해의 무덤들이 밀집되어 있다. 무덤들은 위치에 따라 크게 제1고분군과 제2고분군으로 나뉘는데, 발해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의 무덤은 제1고분군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혜공주묘는 1949년 8월 둔화현(敦化縣)에 위치한 계동중학(啓東中學)과 연변대학(延邊大學) 역사과가 공동으로 9기의 고분을 정리하던 중에 확인되었는데, 무덤의 연도에서 정혜공주의 묘지(墓誌)가 새겨진 묘비(墓碑)가 발견되면서 무덤의 주인이 밝혀졌다.

정혜공주묘지가 새겨진 묘비는 7조각으로 부서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후 복원을 통해 모두 725자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중 식별이 가능한 글자는 491자였다. 정혜공주묘지는

“
3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의 출토는 8세기 발해인들이 남긴
생생한 자료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비석의 정면에만 음각되어 있으며 서체는 해서체이다. 세로줄을 그어 그 안에 글자를 배치하였으나 가로줄은 표시하지 않아 각 행마다 글자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비석의 형태는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네모난 형태, 즉 규형(圭形)이다. 비석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크기는 높이 90cm, 너비 49cm, 두께 29cm이다.

이후 1980년 길림성의 화룡(和龍)에 위치한 용두산(龍頭山)에서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기단만 남아 있던 전탑(塼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탑 아래에 무덤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역시 무덤의 연도 부분에서 묘비가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정효공주의 묘지가 새겨진 비석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에 정효공주묘지를 통해 정혜공주묘지를 복원할 수 있었다.

정효공주의 비석 정면에는 총 18행 728자가 음각되어 있으며, 서체는 역시 해서체를 사용하였고 비석의 형태는 규형, 재질은 화강암으로 역시 정혜공주의 비석과 동일하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05cm, 너비 58cm, 두께 26cm이다. 다만 정혜공주묘지와 달리 세로줄이나 가로줄을 그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3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지의 출토는 8세기 발해인들이 남긴 생생한 자료

포커스 II



정혜공주묘(필자 촬영)



정효공주묘 벽화(동북아역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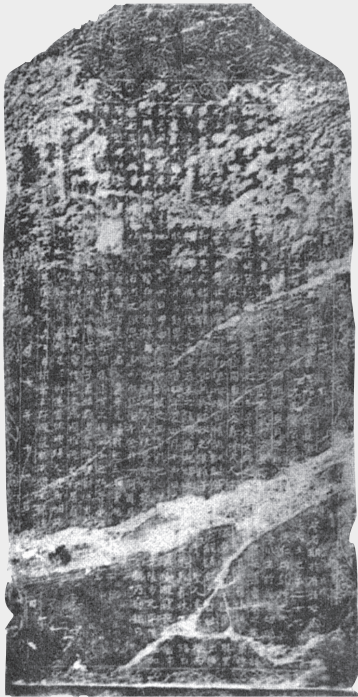
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편, 두 공주의 무덤은 그 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육정산고분군 내에 위치한 정혜공주묘는 지상식의 대형 석실봉토묘인데, 이러한 형태는 평양 도읍기 고구려의 주요 무덤 양식이었던 석실봉토묘와 유사하다. 정혜공주묘의 천장에는 평행고임과 삼각고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고임식 천장 형태 역시 고구려의 무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묘지와 석사자상이 정혜공주묘의 내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전돌로 바닥을 시설했다는 점 등에서 당의 영향이 보이기도 한다.

정효공주묘는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선 묘의 축조 재료가 전돌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아울러 정효공주묘의 구조는 섬서성(陝西省) 부풍현(扶風縣) 법문사탑(法門寺塔)으로 대표되는 당의 지궁(地宮)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지궁이란 사리를 장엄하는 공간으로 당 시기에는 법문사탑 지궁과 같이 당 황실무덤의 지하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사리를 안치하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정효공주묘의 구조가 이를 닮은 것이다. 아울러 정효공주묘의 묘실 네 벽에는 시위도(侍衛圖)가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벽화는 형태와 내용 면에서 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위도에 그려진 인물의 의관(衣冠)에서도 당의 영향이 드러난다. 물론 정효공주묘의 천장이 판석(板石)으로 축조되었다는 점, 평행고임 구조가 드러난다는 점 등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이 보이기도 한다.

2. 정혜·정효공주의 묘지에 드러난 8세기 발해 사회

묘지는 고인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여 무덤 안에 묻은 글로,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목적을 담고 있다. 고인의 생애를 기록한 산문인 ‘지



정혜공주묘지 탁본
(王承禮, 1979, 「敦化六頂山渤海墓清理發掘記」, 『社會科學戰線』1979-3, 吉林文物管理委員會, 圖版 一)



정효공주묘비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2,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1982-1, 吉林省博物館協會·吉林省博物院)

포커스 II

(誌)’와 고인을 추도하는 운문인 ‘명(銘)’으로 구성되어, 정식 명칭은 묘지명(墓誌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 역시 지와 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공주의 묘지는 “정혜공주묘지병서(貞惠公主墓誌并序)”, “정효공주묘지병서(貞孝公主墓誌并序)”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기에 정혜공주묘지, 정효공주묘지로 불려 왔고, 이 글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한다.

묘지명은 사람이 죽고 난 후 바로 제작되었기에 당대(當代)의 사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 관직, 행적 등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묘지명의 작성 목적이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찬양하고 추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용에 과장 혹은 윤색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며 묘지명을 읽어야 한다.

한편, 발해와 동시기에 공존하던 당에서는 변려문(駢儷文)을 사용하는 형식의 묘지명이 크게 유행하였다. 변려문이란 네 글자와 여섯 글자로 된 구절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구법을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다. 발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 역시 전형적인 변려문이다.

발해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는 크게 서문 네 단락, 명문 여섯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76쪽 표와 같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두 공주 묘지의 구성은 동일하다. 구성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도 공주의 개인사, 예를 들어 자녀나 사망 일자, 사망 당시 나이, 배장 날짜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생각건대 공주가 태어나매 어려서부터 진실로 아름다웠다.

비상하게 총명하고 슬기로워 널리 듣고 높이 보았다.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의 단락 구성

구분	단락 구성	정혜공주묘지	정효공주묘지
서문	1. 부녀자의 덕을 중국 고사를 통해 전개	2행~3행 14자	2행~3행 9자
	2. 공주의 조상과 부왕이 세운 위대한 업적 찬양, 공주의 고귀함을 밝힘	3행 15자~5행 19자	3행 10자~5행 5자
	3. 공주의 생애(출생, 출가, 수절, 요절)	5행 20자~11행 16자	5행 6자~10행 17자
	4. 공주의 안장(安葬)	11행 17자~14행	10행 18자~13행
명문	1. 공주의 출신	15행	14행 시작~14행 34자
	2. 공주의 지혜로움과 아름다움	16행	14행 35자~15행 27자
	3. 공주의 출가	17행	15행 28자~16행 18자
	4. 공주의 수절	18행	16행 19자~17행 13자
	5. 공주의 장례	19행	17행 14자~18행 7자
	6. 공주의 죽음에 대한 애도문	20행	18행 8자~끝

궁궐의 모범이 되었고 동궁의 누나가 되었으니,
 옥같은 얼굴은 무궁화만이 비길 수 있었다.

이 구절은 공주의 용모와 성격을 축약한 명문의 일부인데, 정혜·정효 두 공주의 묘지에 모두 등장한다. 이외에도 공주의 용모, 성격, 행동 등을 묘사하는 구절이나 고사는 거의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처럼 두 공주 묘지는 겹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한 정혜공주묘지의 내용을 정효공주묘지를 통해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발해 사회 내에 묘지 제작에 사용하는 정형화된 문장이나 격식이 있었고, 이러한 문장 혹은 격식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고쳐서 사용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로 인해 묘지에서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만의 특징 혹은 개성이

“
묘지에서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만의 특징 혹은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인이 남겨 놓은 당대의 문자자료인 두 공주의 묘지를 통해 발해사의 많은 부분을 읽어낼 수 있다.
”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인이 남겨 놓은 당대의 문자자료인 두 공주의 묘지를 통해 발해사의 많은 부분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두 공주의 생애를 살펴보자. 정혜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로 남편과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내고 수절하다가 777년 4월, 공주의 나이 40세에 죽어 780년 11월에 진릉(珍陵) 근처에 묻혔다.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역시 남편과 어린 딸을 잃고 수절하다가 792년 6월 사망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염곡(染谷)에 묻혔다.

그런데 두 공주의 장지와 장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혜공주묘는 길림성 돈화 지역에, 정효공주묘는 길림성 화룡 지역에 있었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육정산고분군이 위치한 돈화 지역은 발해의 구국(舊國) 지역으로, 용두산고분군이 위치한 지역은 발해의 중경(中京) 지역으로 여겨진다. 두 공주의 무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축조된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다. 정혜공주묘가 축조된 때는 발해가 상경에 도읍을 두고 있던 시기이며 정효공주묘 역시 동경 지역에 수도를 두고 있던 시기로 발해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다. 이외에 귀장제(歸葬制) 실시나 남편의 신분 혹은 역할 등을 이유로 거론하는 연구

가 있었지만, 모두 추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혜공주는 매장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정효공주는 그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혜공주의 장례기간이 3년이 넘었던 것은 고구려의 상장의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서』의 기록을 통해 고구려의 빈장기간이 3년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공주묘는 무덤 양식뿐만 아니라 장례기간에서도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에는 모두 발해 문왕을 지칭하는 칭호로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러한 칭호는 사서에서는 확인되지 않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칭호 중 ‘효감’이라는 칭호는 무슨 의미일까? 당의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 및 『신당서』에 기재된 당 황제의 시호 중에 ‘…효감(孝感)’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나, 본기에 보이는 존호 등에서는 “…효감 황제(孝感皇帝)”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문왕의 칭호는 당 황제 존호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왕의 칭호 중 ‘금륜(金輪)’과 ‘성법(聖法)’은 불교식 용어로 전륜성왕의 관념과 관련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칭호 중 ‘대흥(大興)’과 ‘보력(寶曆)’은 문왕 당시에 사용했던 연호이다. 정혜공주묘지에서는 공주의 사망 및 안장 시기를 밝힐 때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효공주묘지는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774년부터 어느 시점까지 ‘보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던 발해가 문왕 말기에 들어 다시 이전의 ‘대흥’이라는 연호로 복귀하였음을 드러낸다. 연호는 왕의 국정 운영 목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당 태종의 통치이념을 담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 따온 연호 ‘보

“
두 공주의 묘지에서 모두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앞에 두 칸을 비워두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왕에 대한 이러한 표현과 형식을 통해 당시 발해가
독자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력’은 왕권 강화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가 정효공주 묘지에서 보령 연호 사용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문왕이 추진한 일련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한편, 두 공주의 묘지에서 모두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앞에 두 칸을 비워두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왕에 대한 이러한 표현과 형식을 통해 당시 발해가 독자적인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발해 문자자료 연구의 아쉬움

발해 역사의 귀속 문제는 국제적 논란이 되어왔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학계(북한 포함)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 학계는 말갈계 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학계는 동북공정을 기점으로 발해사는 물론 고구려사까지도 자신들의 역사로 귀속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발해사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료의 기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구당서(舊唐書)』 발해말갈전과 『신당서(新

“
어느덧 묘지명이 발견된 지는 20여 년이고,
약식 보고서가 간행된 지도 10년이 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두 황후의 묘지명 전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다.
”

『唐書』 발해전에서는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에 대해 각각 ‘고려별종(高麗別種)’과 ‘속말말갈(粟末靺鞨)’ 출신으로 기록해둔 것에 반해 『속일본기(續日本紀)』에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발해인이 남긴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을 남긴다고 하겠다.

정혜공주묘지와 정효공주묘지가 발견된 지 각각 70여 년과 40여 년이 지났다. 문자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두 공주의 묘지는 발해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해왔고 많은 논쟁과 연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발해 왕실 구성원의 묘지명은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4~2005년에 진행된 용두산고분군 조사 과정에서 효의황후와 순목황후의 묘지명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1년 약식 보고서(簡報)에 두 묘지명의 존재와 주인만 언급되었고, 2023년 발표된 연구에서 두 황후 묘지명 중 극히 일부만이 소개되었다. 어느덧 묘지명이 발견된 지는 20여 년이고, 약식 보고서가 간행된 지도 10년이 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두 황후의 묘지명 전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다. 추후 두 황후의 묘지명 전문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면 발해사 연구가 또 한 걸음 진전할 수 있

포커스 II

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발해 왕실 묘지명 연구나 여성 묘지명의 연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도 정혜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문자자료의 빠른 소개를 바라며 그와 함께 정혜·정효공주 묘지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박유정(朴裕晶, Park, Yu-jeong)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 대학교에서 강사로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등 한국사 교양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8세기를 중심으로 발해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지리 및 공간사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이 된 발해인

박순우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1. 멸망 후 발해인의 움직임

익히 알려져 있듯, 발해는 926년 정월 요(遼) 건국자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공격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발해국의 소멸은 발해를 구성한 민인(民人)이 각자도생의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하였고, 그 결과 ‘발해인’의 향방은 무상(無常)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요 조정에 의해 요 내지로 강제 천사(遷徙)된 부류, 요에 강제 천사되었지만 요의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송으로 내투(來投)한 부류, 또는 요의 무력이 미치지 않는 동북지역 깊숙한 곳으로 도망한 부류, 그리고 요의 강제 천사를 피해 자신들의 고토를 뒤로 한 채 고려로 내투한 부류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글에서는 고려를 찾아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발해인의 정착과 출세를 살

펴보고, 아울러 고려의 발해인 정착 지원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 정착, 삶을 지속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10세기 초 나라를 잃고 고려를 찾아온 발해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울러 발해인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고려 조정이 감내하고 처리해야 할 일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고려의 대(對)발해인 정책은, 고려를 찾은 발해인의 운명은 물론 고려 사회의 미래도 결정하는 것이었기에 그 역사적 의미 또한 결코 작을 수 없었다. 심지어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2. 발해인의 고려 내투와 고려 조정의 정착 유도

발해인의 고려 내투는 발해가 요 태조 야율아보기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기(926년 1월) 전인 925년 9월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장군 신덕(申德)이 500여 명의 발해인을 이끌고 고려를 찾은 것이다. 발해인의 내투는 중간에 몇 차례 끊기기도 했지만, 고려시대 전반기 내내 이뤄졌는데,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84쪽 표와 같다.

발해인의 고려 내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고려시대 내투 발해인 중 분명하게 셈이 가능한 인원은 1,811명이다. 정확한 사람 수를 추산하기 어렵게 하는 표현, 예컨대 4,160호(戶), ‘솔민(率民)’, ‘배 20척(船二十艘)’, ‘수만(數萬)’과 ‘심중(甚衆)’ 등 모호한 기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투 발해인 총수에 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서로 다르다. 논자마다 1호를 몇 명으로 셈할 것인지, 또 ‘수만(數萬)’과 ‘심중(甚衆)’ 등 추상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

고려시대 발해인 내투 시기 구분과 인원수

구분	시기	인원(名)	호(戶)	내투 시기 주변 정세
1	태조 8년~21년 (925~938)	970	4,160 數萬	- 배 20여 척으로 옴 - 발해 멸망 전후에 천사[동단국(東丹國) 천사 거부] - '후발해(後渤海)'운동 실패 - 이후 40여 년간 내투 끊김
2	경종 4년 (979)		數萬	- 황룡부 위장 연파의 반란과 요(遼)의 토벌 - 요의 동북지역 일대 공격과 정안국(定安國) 붕괴 - 이후 40여 년간 내투 끊김
3	현종 9년~문종 4년 (1018~1050)	745	甚衆	- 1인 이상, 20인 내외의 소규모 내투 - 대연림의 흥료국(興遼國) 실패와 사민정책에 대한 반발 - 이후 40여 년간 내투 끊김
4	예종 11·12년 (1116·1117)	96		- 거란(契丹)·해(奚)·숙여진(熟女眞)·한(漢) 등과 함께 내투 - 요·금 교체기 - 고영창의 대발해국 건국과 실패(1116)
계		1,811	4,160	- ○○等來投의 '等'은 미상 - 率民, 船二十艘, 數萬, 甚衆 등의 사례는 수치 환산이 불가하여 합산하지 않음

견이 분분하다. 그 결과 내투 발해인 총수를 혹자는 4만 명으로, 혹자는 12만 명으로 추산하거나, 또는 수십만 명 규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는 고려에 내투한 여진인이나 거란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발해 유민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내투 발해인의 총수를 규명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에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내투 발해인의 총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투 발해인이 애초 어떤 의

“
내투 발해인이 고려 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등의 문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투 발해인에 대한 고려 조정의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면 발해인의
고려 사회 정착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문제도 발생했을 것이다.
”

식을 지녔는지, 또는 내투 후 고려 사회에 어떻게 동화되어 갔는지, 그리고 발해인으로서의 ‘출자(出自)’ 의식이 어느 정도(수준)로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되었는지 등의 문제일 것이다.

이와 함께 내투 발해인이 고려 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등의 문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투 발해인에 대한 고려 조정의 정책적 지원이 없었다면 발해인의 고려 사회 정착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문제도 발생했을 것이다. 아울러 발해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록이 남아 전하지 않는데, 그 배경에 관한 탐구도 필요하다.

내투 발해인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는 발해 세자 대광현이 내투했을 때의 경우다. 925년 12월 대광현이 수만 명(數萬)의 발해인을 거느리고 내투하자, 고려 조정은 그들을 전략적 요충지인 배주[白州: 현재 황해도 배천(白川)]에 배치해 지키게 하고 조상의 제사도 받들도록 허용했다. 그뿐 아니라 대광현을 따라온 요좌(僚佐)에게는 작위를 내려주고 군사에게는 전택(田宅)을 하사하였다. 대광현이 인솔한 대규모 발해인에 대한 고려 조정의 조치가 그들의 직분에 맞게 비교적 세부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외에 고려가 내투인을 강남의 주군(江南州郡)에 또는 남쪽 땅(南地)에 배치하거나, 현종 때에는 이종족인 동여진이 한꺼번에 300호나 내투하자 이들을 '발해의 옛 성(渤海古城)'에 배치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를 통해 발해인뿐 아니라 고려를 찾은 이종족에게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고려 조정의 정책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추정컨대 내투 당시 고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고려 조정은 단순한 시혜를 넘어 내투인의 고려 정착을 합리적으로 유도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고려의 입장에서든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다. 내투인이 북방에 배치된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고려는 북방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북방의 방어 재원을 현지 조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다수의 발해인에게 나눠줄 토지 또한 남쪽보다는 북쪽에 더 많았다. 고려는 북방의 이종족을 고려의 투화군(投化軍)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려 초기 내투 발해인의 상당수는 고려 북방에 배치되었을 것 같다.

3. 고려인이 된 발해인: 함께 역경을 헤쳐 나간 발해인

고려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 고려와 내투 발해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최소 '수만'의 발해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고려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일이지만 거란의 침입 당시 발해인이 무장으로 활약하며 고려의 국방에 기여한 정황을 감안하면, 고려의 발해인 정착 유도책은 발해인의 고려 사회 정착은 물론 고려의 이익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거란 간 전쟁은

“
거란의 침입 당시 발해인이 무장으로 활약하며 고려의 국방에
기여한 정황을 감안하면, 고려의 발해인 정착 유도책은 발해인의
고려 사회 정착은 물론 고려의 이익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한반도에 큰 비극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고려인과 발해인의 융화가 촉진
되거나 심지어 가속화된 셈이다.

고려 전기 성종~현종 대 거란과의 전쟁은 고려에 내투한 발해인의 후
손이 고려 군사에 편입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종~현종 때 활동한 대
도수(大道秀)는 1차 전쟁(994) 당시 중낭장(中郎將: 정5품)으로, 2차 전쟁
(1010) 당시엔 장군(將軍: 정4품)으로 활동하였다. 대희덕(大懷德)은 2차 전
쟁에서 활약하다 전사했는데, 전사 당시 직책은 대장군(大將軍: 종3품)이
었다.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고려로 들어온 발해인의 2세가 고려에서 나
고 자라 고려를 수호하는 장교로 거듭났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 등장하는 발해인도 주목할 만하다. 대집성(大集成)이라는
인물은 대몽전쟁 전후로 크게 현달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발해인이 무직
으로 활동한 것과 달리, 대집성은 중앙정부에서 크게 출세한 사례라 더욱
눈길을 끈다. 그는 무신정권기 최고 권력을 행사한 최우(崔瑀, 崔怡)의 측
근으로 활동하였고, 재추(宰樞)의 반열에까지 올랐으며, 자신의 딸을 최우
의 후실로 들여보내기도 했다. 후자는 대집성의 출세가 자신의 딸을 후실
로 바친 데에서 기인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집성의
이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대집성 가(家)를 지칭
하는 ‘대씨족당(大氏族黨)’이란 사례가 주목된다.

“
중요한 것은 이성(異姓)의 인사까지 포괄하는 집단을
대씨족당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무리의 중심이 발해인 대씨였던 것이다.
”

대집성은 자신의 두 딸을 모두 고려의 관료와 혼인시켰다. 그런데 대집성이 1236년에 죽고 1249년에 최우가 사망하자 고려 조정이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지게 되었고, 대집성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후손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최우의 후실이었던 택주(宅主) 대씨는 후계자 지정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우의 아들 최항(崔沆)을 지지하지 않고 김약선(金若先)의 아들 김미(金旻)를 지지했다가 최항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이에 최항은 1251년 대씨의 택주 작위를 박탈하고 재산도 몰수하였다.

그런데 택주 대씨가 1251년 최항에 의해 독살당할 때, 함께 살해되거나 유배된 대씨족당의 규모가 (노비를 포함해) 7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씨족당 사례가 조선 후기의 전형적 가문의 모습은 아닐 테지만, 용어로 보아 가세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된다. 고려시대 친족의 범위는 조선시대에 비해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족당’은 부계·모계·처계 인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이성(異姓)의 인사까지 포괄하는 집단을 대씨족당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무리의 중심이 발해인 대씨였던 것이다. 이러한 족당 사례는 다른 가문에서도 확인되는데, 금주(金州: 현재 김해) 대문(大文)의 가계에 대해서는 지면상 설명을 생략한다.

발해인의 국난 극복 참여는 조선시대에도 확인된다. 조선시대 최대 국난이었던 임진왜란 당시, 앞서 언급한 대집성을 중조(中祖)로 하는 남원의 협계태씨 발해인은 국난 극복에 적극 나섰다. 이 가계의 구성원은 가산(家産)을 내고 모곡(耗穀) 활동을 전개하여 군량미 300곡을 조선에 파병 온 명나라 군사에게 지원하고, 정유년 당시에는 ‘중족 수십 명과 가동(家僮) 수백 명’이 남원성전투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분전하였다. 그 결과 남원을 중심으로 세계(世系)를 이어온 협계태씨 발해인은 임진-정유년 전쟁으로 인해 많은 후손을 잃었고, 가세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원과 그 인근인 장수, 임실, 그리고 군산의 옥구 등지에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남원의 협계태씨 외에도 고려 후기 영순군(永順君)에 봉해진 태씨가 확인된다. 이 태씨를 중시조로 하는 영순태씨는 족보에 ‘태씨 성을 가진 이’를 대금취(大金虜)라고 주장한다. 이들을 통상적으로 영순태씨로 부르는데, 영순현(현재 문경시 영순면)에서 족세를 이어왔다. 이후 이들은 문경 인근의 예천과 대구, 경산 등지로 거주범위를 넓혔고, 지금도 그 후손이 매해 경산에 모여 발해 건국자 대조영에 대한 제사를 이어오고 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한다. 고려에 내투, 정착한 발해인은 고려~조선의 국난에 앞장서 싸웠고, 발해인의 이러한 노력이 당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조선시대 사료에 발해인에 관한 부정적 기록이 전하지 않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4. 우리 시대의 발해인이란?: 더해지는 정체성

현대의 불특정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동아시아 주변

여러 인종의 DNA가 함께 확인된다. 각 인종의 DNA 퍼센트만 다를 뿐인데, 이 결과는 지난 한국 역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어떠한가. 세계 각국 간 인적 교류가 폭증하며, 외교·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교류도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결혼도 전 근대 시기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현대 한국인의 DNA가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화 현상이 아니고, 인류 역사 이래 지속된 문화이고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이동과 정착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인적 비율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뿐, 인류는 전근대 시기 이래 다종족·다문화 사회였음이 분명하다.

내투 발해인을 환대한 이유가 ‘동족’이어서였다는 주장은 당시 모습을 규명하는 데 장애만 될 뿐이다. 수만의(혹은 수십 만의) 발해인을 고려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진대, 단순하게 ‘동족’이니가 베풀었다는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주장일 따름이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역사 이해의 지름길이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고려인과 발해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는지이다. 그들(타자)을 위한 우리의 시혜(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고려시대 내투 발해인이 한반도에 어떻게 정착, 융화하여 고려시대 발해인, 조선시대 발해인으로 조화롭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표 설정에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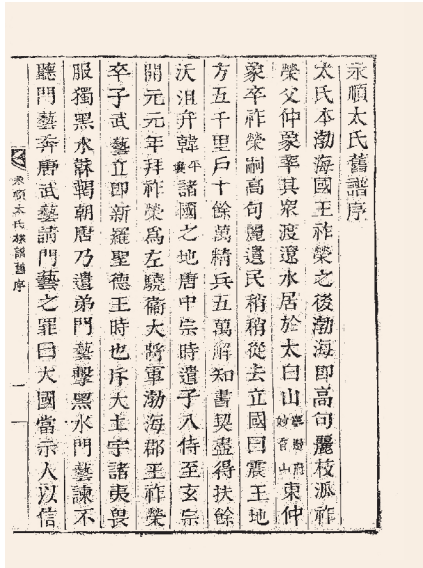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다. 고려시대 내투 발해인은 고려 사회에 어렵지 않게 동화되어 갔기에, 그들이 ‘오래지 않아 자신의 연원을 잊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있다. 필자는 그에 동의하지 않으며, 발해인이 자신의 선

“
고려~조선시대의 발해인은 자신의 선대가 발해로부터
연원했다는 출자 의식, 자신의 현달한 선대를 기리는 추념 의식,
그리고 고려 조정으로부터 새로이 부여받은 협계, 영순이라는
본관 모두를 안고 살아갔다고 생각한다.
”

대가 발해에서 연원했음을 잊지 않았다고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고려는 물론 조선에 널리 쓰인 ‘발해(인)’이란 용례가 그를 증명하는 바가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선대에 대한 ‘추념’ 의식의 발현이라고 명명하였다. 고려~조선시대의 발해인은 자신의 선대가 발해로부터 연원했다는 출자 의식, 자신의 현달한 선대를 기리는 추념 의식, 그리고 고려 조정으로부터 새로이 부여받은 협계, 영순이라는 본관 모두를 안고 살아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고려~조선시대를 살아간 발해인이 지닌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고, 그 농담(濃淡)의 정도도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랐겠지만, 그들에게 내재해 있었음은 분명하다. 모든 인간은 고유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문화를 경험하고 내재화하며, 그 결과 정체성이 발아, 정형화, 변화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강변하기 어렵고, 그 점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모한 일일 수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조응하며 형성·변화하는데, 그러한 변화하고 유동하는 정체성의 특질을 포착해 내려는 순간 또 다른 모순에 빠질 것이다.

포커스 II



『영순태씨족보』서문
 (가와이문고 소장, 1857)



2011년에 남원시 사매면에 새롭게 조성한 협계태씨 증시조 대집성의 묘

포커스 II

발해인 역시 발해인으로서의 정체성,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루 가꿔 나갔다. 역사 연구에서 발해인의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개인’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길 원하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박순우(朴淳佑, Park, Soon-woo)

군산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군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10~14세기 渤海人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류의 역사가 ‘정착’과 ‘이주’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발해 멸망 이후의 발해인과 고려를 찾은 이종족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유득공과 『발해고』

김종복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발해고』를 지은 이유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은 조선 후기 정조 때에 규장각에서 검서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박지원(1737~1805), 홍대용(1731~1783), 박제가(1750~1805) 등과 교유한 이른바 북학과(北學派) 계열의 실학자이다. 그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경향이 강한 북학과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저술을 많이 남겼다.

기자조선에서 후백제에 이르는 역대 시를 집성한 『동시맹(東詩萌)』(일명 『삼한시기(三韓詩紀)』, 1774)과 단군조선이 도읍한 왕검성에서 고려의 수도 송도까지 우리 역사상의 도읍지를 소재로 한 역사서사시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日懷古詩)』(1778),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삼국에서 처음으로 발해의 역사를 편찬한 『발해고(渤海考)』(1784)와 한사군의 역사지리를 정리한 『사군지(四

포커스 II

郡志』(1801?), 그리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세시풍속을 소개한 『경도잡지(京都雜誌)』(1790?)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소주제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고증한 필기체 저술인 『고운당필기(古芸堂筆記)』도 유득공의 작품이다.

이밖에 1790년과 1801년에 청의 수도인 북경을 방문한 경험을 기록한 『난양록(瀋陽錄)』(일명 『열하기행시주(熱河紀行詩註)』, 1795)과 『연대재유록(燕臺再游錄)』(1801) 등도 중요한 저술이지만, 유득공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저술은 『발해고』이다. 『발해고』가 유명한 이유는 그 서문에서 신라와 발해가 양립한 남북국시대론을 제기한, 그 강렬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조선시대 역사서들은 성리학적 정통론에 입각하여 자국사의 체계를 서술하였는데, 이때 정통의 계보가 단군→기자→마한→문무왕 9년(669) 이후의 신라→태조 19년(936) 이후의 고려→조선으로 계승된다고 파악하였다. 즉 신라·고구려·백제 삼국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통(無統)으로 취급함으로써 삼국을 대등하게 서술하였지만, 백제·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신라에 정통을 부여함으로써 발해를 자국사와 무관한 주변국의 역사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 조선이 약소국이 된 역사적 원인을 고구려 영역의 상실에서 찾는 가운데, 이를 계승한 발해에 관심을 갖는 지적 분위기가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백두산정계비 설치(1712)로부터 촉발된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고토(故土) 의식, 실지회복(失地回復) 의식과 결부되면서, 발해의 역사지리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곧바로 발해를 자국사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안정복(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1759)은 아직 신라정통론의

“
『발해고』는 『동사』를 통해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동사강목』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발해사 저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발해를 주변국의 역사로 인식하되, 학문적 차원에서 발해사 서술을 확대하고 지리 고증에도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 반면 이종휘(1731~1797)의 『동사(東史)』는 단군과 기자의 정통이 고구려와 발해로 계승되었을 뿐 신라로는 계승되지 않았다고 파악함으로써 신라정통론을 부정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유득공이 자국사에서 삼국시대에 뒤이어 신라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발해와 양립했다는 남북국시대론을 주장하고, 남북국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국내외 사서에서 발해와 관련된 사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해고』를 편찬한 것은 이 두 갈래를 종합한 결과이다. 즉 『발해고』는 『동사』를 통해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동사강목』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발해사 저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세 차례에 걸친 수정

유득공의 『발해고』는 신라와 발해가 양립한 남북국시대론을 주장하면서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시키는 논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사학사적 의의를 현재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초의 발해사 저술임

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소략하고 오류가 적지 않아서 유득공이 한 차례의 대폭적인 수정과 두 차례의 추가적인 수정을 가했던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전하고 있는 『발해고』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1권 1책으로서 유득공의 서문(1784년 윤3월)과 박제가의 서문(1785년 가을)이 실려 있으며, 그 구성은 「군고(君考)」, 「신고(臣考)」, 「지리고(地理考)」, 「직관고(職官考)」, 「의장고(儀章考)」, 「물산고(物産考)」, 「국어고(國語考)」, 「국서고(國書考)」, 「속국고(屬國考)」의 9고(考)이다. 이는 3종의 필사본과 1911년 조선고서간행회의 활자본이 있다. 다른 하나는 4권 1책으로서 서문은 없지만 「오경도」, 「오경표」가 있으며, 그 구성은 「군고」, 「신고」, 「지리고」, 「직관고」, 「예문고(藝文考)」의 5고이다. 이는 7종의 필사본이 있다.

전자는 누락된 사료가 적지 않고, 특히 지리 고증에서 오류가 많은 『요사』 「지리지」를 답습한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의 비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발해의 동경과 남경을 요동지역에 잘못 비정하였다. 반면 후자는 전자보다 분량이 1/3 이상 증가하였다. 그만큼 추가된 사료도 많고, 특히 「지리고」는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며 『요사』 「지리지」나 『대청일통지』의 오류를 극복하였다. 그래서 발해의 동경과 남경을 함경도 경성과 함흥에 비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통설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자는 초고본, 후자는 수정본에 해당한다. 초고본이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식이라면, 수정본은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고증적인 연구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초고본의 9고와 수정본의 5고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군고」는 내용의 가감과 함께 일부 순서가 바뀌었다. 「신고」는 31명 추가와 함께 일부 순서가 바뀌었다. 「지리고」는 세부 목차가 설정되고 지리 고증이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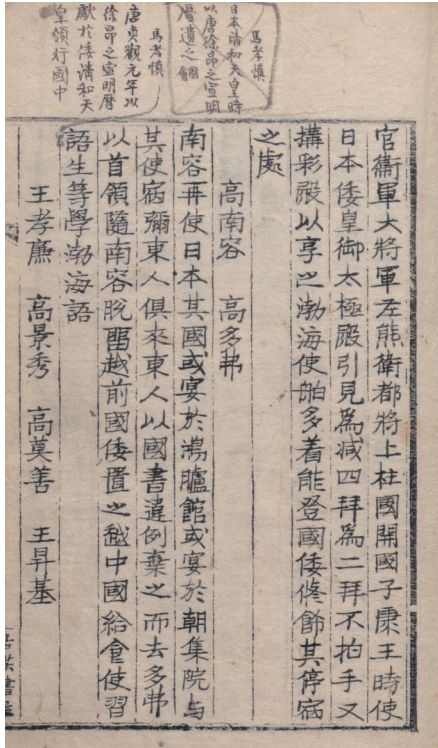
하였다. 초고본의 「직관고」와 「의장고」 일부는 수정본의 「직관고」로 통합되었고, 초고본의 「국서고」는 수정본의 「예문고」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뒤에 초고본의 「속국고」가 부록으로 붙었다. 그밖에 초고본의 「물산고」, 「국어고」 및 「의장고」 일부는 수정본의 「군고」로 이동하였다.

7종의 수정본 『발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재서종 단 발해고(冷齋書種單 渤海考)』(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이다. 이는 유득공이 직접 쓴 것으로 여기에는 원문을 삭제, 가필, 추가한 곳이 적지 않고, 서로 다른 필체도 발견된다. 이를 다른 필사본과 비교해 보면 유득공이 『발해고』를 수정한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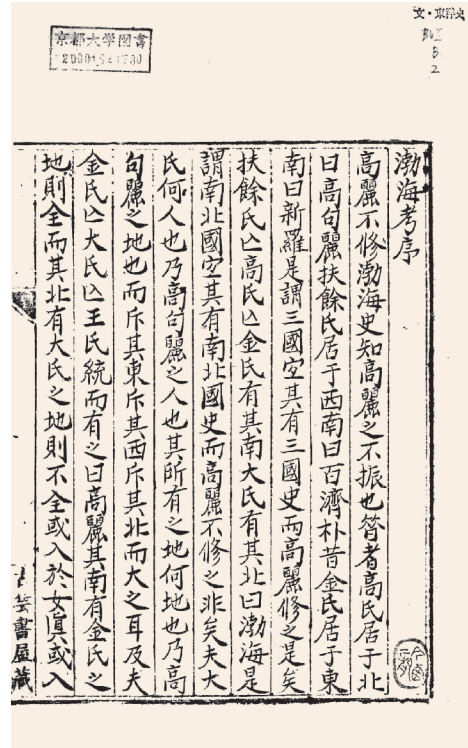
예컨대 권1 「군고」 ‘무왕’조의 개원 20년(732) 발해의 등주 공격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자사 위준을 죽이다(殺刺史韋俊)와 “이를 두고 선왕의 수치를 씻었다고 한다(謂之雪先王之恥)” 사이에 “마도산까지 진격하여 성읍을 함락시켰다(進兵馬都山 屠陷城邑)”가 행간에 작은 글씨로 추가되어 있다. 이 부분이 『발해고 일권전(渤海考 一弓全)』(국립민속박물관 소장)에는 추가 부분이 없이 “자사 위준을 죽이니, 이를 두고 선왕의 수치를 씻었다고 한다(殺刺史韋俊 謂之雪先王之恥)”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사본에는 추가 부분이 반영되어 “자사 위준을 죽였으며, 마도산까지 진격하여 성읍을 함락시켰다. 이를 두고 선왕의 수치를 씻었다고 한다(殺刺史韋俊 進兵馬都山 屠陷城邑 謂之雪先王之恥)”로 정서되어 있다.

이처럼 『영재서종 단 발해고』에서 삭제, 가필, 추가하기 이전의 상태가 『발해고 일권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후자에는 전자를 포함하여 다른 필사본에는 다 수록되어 있는 「오경도」, 「오경표」 및 권4 「예문고」의 ‘당현종칙무왕서(唐玄宗勅武王書)’ 4수가 없다. 따라서 후자가 1차 수정본에 해당된다. 즉 1차 수정 시에 초고본의 9고가 5고로 체제가 대폭

포커스 II



『영재서종 단 발해고』(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발해고』 서문(교토대학교도서관 소장)

수정되었고, 「지리고」는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경도」 등을 추가한 것이 2차 수정본에 해당된다.

한편, 다시 전자의 「목록」 ‘신고’ 부분에는 ‘고남용 고다불(高南容 高多弗)’ 다음에 ‘마효신(馬孝慎)’이 추기되어 있고, 「신고」의 ‘고남용 고다불’조 상단에 ‘마효신은 일본 청화천황 때에 당 서양의 선명력을 전해주었다. 삼재도회(馬孝慎 日本清和天皇時 以唐徐昂之宣明曆 遺之 圖會)’라는 추

기에 삭제 표시가 있고, 다시 “마효신은 당 정관 원년에 서양의 선명력을 왜 청화천황에게 바치니, 나라에 반포하여 실행하였다(馬孝愼 唐貞觀元年以徐昂之宣明曆 獻於倭清和天皇 領行國中)”라는 별도의 추기가 있다. 그런데 2차 수정본에 해당하는 필사본 중에는 이 ‘마효신’ 조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마효신’ 조목이 추가된 것은 3차 수정본에 해당한다.

유득공의 다른 저술을 통해 살펴볼 때, 그는 1791~1793년 무렵에 발해 지리 부분을 수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시기적으로 볼 때 1790년의 연행을 통한 현지답사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리고」뿐만 아니라 「군고」, 「신고」, 「예문고」까지 대폭 수정한, 즉 1권 9고의 체제에서 4권 5고 체제로 대폭 수정한 1차 수정본이 이 무렵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2차와 3차 수정본은 1차 수정본에 대한 보완이라는 점에서,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3. 수정본 『발해고』의 의의와 한계

수정본 『발해고』의 첫 번째 의의는 초고본의 오류인 「지리고」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여 발해에 대한 지리 고증이 근대 역사학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이며, 두 번째 의의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군고」, 「신고」, 「예문고」의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정본 『발해고』에는 실학자 유득공의 실증적이고 박학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그렇지만 전근대 역사학스러운 한계도 없지 않다. 첫째로 『책부원귀(冊府元龜)』나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처럼 누락된 자료가 여전히 있다. 둘째로 발해의 지리 비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도 존재한다. 유득공은 고구

“
『발해고』는 발해의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군고」에서 발해 왕의
기년이 아니라 당의 기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고」에서도
발해 사신의 파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무왕 때나 문왕 때라고 막연히 서술하였다.
”

려의 수도인 국내성의 위치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비정에 따라 평안도 성천으로 보았다. 북연의 마지막 황제로 고구려에 망명한 풍홍(馮弘)의 무덤을 평안도 운산에 비정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로 인해 서경 압록부 소속의 신주, 환주, 풍주, 정주 등을 압록강 이남 지역에 비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요사』 「지리지」 및 『대청일통지』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동국여지승람』 등 조선 측 문헌에도 적용되었다면, 이러한 오류도 극복하였을 것이다. 셋째로 『발해고』는 발해의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군고」에서 발해 왕의 기년(紀年)이 아니라 당의 기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신고」에서도 발해 사신의 파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무왕 때나 문왕 때라고 막연히 서술하였다. 이는 초고본 때부터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외국 사서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더구나 13대 왕 대현석부터는 재위 기간도 확인되지 않는 형편에서 발해 역대 왕의 연대기를 편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유득공이 초고본 서문에서 “세가, 전, 지라 하지 않고 ‘고’라고 한 것은 아직 역사서를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토로한 것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만약 유득공이 「군고」에서 고왕에서 대건황까지 가능한 한도 내에서

“
『해동역사』의 발해 기사는 수정본 『발해고』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해동역사』는 『발해고』를 토대로 하되, 그 지향점을 계승하고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

발해 왕의 기년으로 환산하여 서술하고, 이에 따라 「신고」에서 발해 사신의 파견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최초의 발해사 저술로서 『발해고』의 가치가 더 드러났을 것이다. 나아가 신라와 발해의 연대기를 병렬적으로 서술한 ‘남북국사’가 편찬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치윤(韓致胤, 1765~1814), 한진서(韓鎭書, 1786~1870)의 『해동역사(海東釋史)』(1823)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득공은 『해동역사』 서문을 썼을 뿐만 아니라, 유득공의 차남은 한치윤의 질녀와 혼인했으며, 유득공의 장손의 딸은 한치윤의 손자와 혼인하는 등 두 집안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해동역사』는 자국의 역사 기록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자료에 산재한 한국사 기사를 총망라한 것으로, 전근대 한국 사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다. 그런데 외국 자료를 통한 자국사의 재구성은 『발해고』와 『사군지』를 편찬했던 유득공이 이미 계획했던 바이며, 한치윤은 이를 이어받아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해동역사』의 발해 기사는 수정본 『발해고』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해동역사』는 『발해고』를 토대로 하되, 그 지향점을 계승하고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발해세기」를 독립시켜 「신라세기」와 병렬시킨 배치는 남북국시대론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발해세기」

포커스 II

는 인용한 사료 그대로 당의 연호를 사용했지만, 이를 발해왕의 기년으로 환산하여 병기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수정본 『발해고』에서 참고하지 못한 『책부원귀』 같은 새로운 자료까지 활용하였으며, 지리 고증에서도 진일보하였다. 이러한 점은 수정본 『발해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김종복(金鍾福, Kim, Jong-bok)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고대사를 전공했고, 발해를 중심으로 한 8~1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와 한중일 삼국의 발해사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대표 논저로 『발해정치외교사』(일지사, 2009), 『정본 발해고』(책과함께, 2018) 등이 있다.

이제는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을 주시해야 한다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2023년 8월 23일, 여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함께 인천공항을 떠나 중국 길림성(吉林省) 장춘(長春)으로 향했다. 2019년 1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2023년 5월 공식적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3년 6개월 만에 중국 땅을 밟게 되었다. 이번 답사는 7박 8일 동안 길림성 내 발해 유적 및 백두산과 그 주변을 둘러보고 그동안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런데 답사 내내 가장 충격을 받아 필자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은 중국 정부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추진했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당시 국내 언론에 동북공정이 알려지면서 학계는 물론 정치계, 일반 시민까지 분개했다. 중국 동북부에서 건국한 고구려·발해 등 우리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든다고 하니,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 내 발해와 고구려의 유적지를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고 교육 장소로 활용하면서 동북공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 학계는 ‘포스트 동북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창바이산문화론’으로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

학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3월 고구려연구재단이 만들어졌고,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하면서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 통합하였다.

동북공정이 끝난 지 17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 보인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알았던 것과 달리 동북공정은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었고 끝난 게 아니라 연속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중국이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현재 자국 영토 내에서 살았던 민족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즉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역사·문화·지리·민족·강역·변경 문제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학술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역사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2007년 동북공정이 형식적으로 끝난 이후 중국 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설명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04년 7월 북한과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중국 정부는 동북지역 내 발해와 고구려의 유적지를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고 교육 장소로 활용하면서 동북공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 학계는 ‘포스트 동

북공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창바이산문화론(長白山文化論)'으로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두고 이번 답사에서 창바이산문화론을 여실히 보여주는 세 곳의 실상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 세 곳 모두 길림성에 있는데, 백산시 무송현의 너인고성(訥殷古城), 백산시 창바이산만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 연변조선족자치주 돈화현의 육정산고분군(六頂山古墳群)이다.

1. 너인고성

먼저 여진족 유적인 너인고성부터 살펴보려 한다. 이곳은 청을 개창한 군주 누르하치가 건주여진 8부를 평정하면서 만주 전역을 통일해 나갈 때, 그 하나였던 너인부(訥殷部)의 성을 복원한 것이다. 너인부는 백두산에서 시작되는 송화강 발원지에 위치하는데, 백두산 천지 남쪽에 있다고 하여 남지(南池)라고도 한다. 부지 면적은 30만㎡(9만 평)에 달한다. 사업비는 3억 위안(한화 557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6년 5월 공사를 시작하여 2년 만에 마쳤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국가 4A급 풍경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복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너인고성 곳곳에 그 해답이 있었다. 분명 이곳은 여진족 유적지인데 한복을 대여하는 가게가 있고, 기복당(祈福堂)에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백의선인(白衣仙人)이란 노인 인형을 앉혀 놓고는 복을 기원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너인박물관에는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연장한 지도가 내걸렸다. 기념비에는 2017년 7월 이 터에서 발해 유적지가 발굴되었다며,



너인고성 입구(2023. 8. 26, 필자 촬영)

이를 근거로 이곳이 발해 5경(京) 중 하나인 서경 압록부 풍주(豊州) 협석현(陝石縣)의 치소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서경 압록부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이곳이 말갈족과 여진족의 터전이었음을 강조하여 발해 역사를 그 일부로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입구 맞은편에 있는 제조전(祭祖展) 건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곳에는 황제복을 입은 청(후금) 시조 부쿠리용순(布庫里雍順) 동상을 중심으로 우측에 누르하치 등 역대 청 황제의 동상이, 좌측에는 기자(箕子), 숙신씨(肅愼氏), 한무제(漢武帝)뿐 아니라 광개토대왕(好太王) 동상이 서 있다.



너인고성 안에 있는 제조전(2023. 8. 26, 필자 촬영)



너인고성 제조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동상

현지통신



너인박물관에 걸린 만리장성을 한반도까지 이어놓은 지도



너인고성 안 금강 하구 근처에 설치된 협석현령 동상과 유지 비석



이도백하진에 있는 유인궤 동상

이 또한 고구려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의 대표적인 한 예이다. 이를 통해 보면, 너인고성은 만주족의 역사를 빙자하여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왜곡하는 총집합소인 셈이다.

발해 역사 왜곡의 대표적 장소는 바오마성(寶馬城)이다. 이곳은 답사지에 포함되었지만, 일정상 찾아가지 못한 곳이다. 여기는 길림성 안도현(安圖縣) 이도백하진(二道白河鎮)에서 서북쪽으로 4km 떨어진 구릉 남쪽 기슭, 백두산 천지에서 북쪽으로 30km 지점에 있다. 이 성은 1,200년 전 발해가 당과의 주요 교통로에 축조한 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시기 어떤 장군이 이곳에서 귀한 말을 얻어 바오마성으로 불렀다’는

“
너인고성이 만주족 사적지를 재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장소라면, 창바이산만족문화박물관은 창바이산문화론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곳이다.
”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실제 이도백하진에는 성당(盛唐)시기(713~765)에 황제가 발해에 파견한 유인궤(劉仁軌)가 말을 타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학계는 이곳을 발굴하고서는 발해 유적이 아닌 금 황실이 백두산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지은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당의 장군 유인궤 동상을 세워 놓고서는 인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연구자가 2018년, 2019년 발굴 현장을 찾았을 때, 유적지 사방에 울타리가 쳐놓고 주변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해 놓고서는 유독 한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였다는 말은 그냥 흘러들을 얘기가 아니었던 게다. 당시 현장사무소에는 ‘금대(金代) 창바이산 신묘(神廟) 유적지 사무실’이라고 쓴 현판이 내걸려 있었다고 하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굴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2. 창바이산만족문화박물관

너인고성이 만주족 사적지를 재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장소라면, 장백산만족문화박물관은 창바이산문화론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곳이다. 이 박물관은 2009년에 개관하였는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만주족만을

특정 지어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만주족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을 일컫는 만주에는 예맥 계통이 세운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의 나라가 있었고 동북쪽 산맥을 중심으로 사냥으로 생활하던 숙신계도 있었다. 숙신계는 읍루·말갈·여진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한다. 발해가 926년 거란에 멸망하지만, 만주에는 여전히 예맥계와 숙신계가 공존하였고 한반도에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2세기 초 여진족이 금을 세워 고려와 대결하였고, 1234년 몽골에게 멸망할 때까지 120년간 존속했다. 그 뒤 여진족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살았는데, 누르하치가 이를 통합하여 380여년 만인 1616년에 후금을 세웠다. 그 뒤 여진족은 만주족으로, 후금은 청(淸)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청은 1912년 신해혁명으로 멸망하기까지 300년 동안 만주를 지배하였다.

이 박물관 입구 정면에는 분위기를 압도할 만큼 크게 만든 백두산 천지 조형물이 있다. 제1, 제2 전시실은 백두산과 관련한 만주족의 신앙·신화, 연혁, 명칭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어 중국에서 말갈족(만주족)이 세웠다고 주장하는 발해부터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강희제가 백두산에서 천신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발해가 당에 조공하는 장면을 부각하고 있으며, 서경 압록부를 상상으로 복원하여 역사적인 사실처럼 연출하고 있다.

2층에는 만주족의 생산·생활 풍습과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백두산 비물질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부스였다. 여기에는 만주족과 관련한 것뿐 아니라 한복 입은 조선족 여인들이 된장술을 담그는 장면이라든가 조선시대 궁중무용, 접시춤, 한복 등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7년 조선족 농악무, 그네, 널뛰기 등을 국

현지통신



창바이산만족문화박물관 전경(2023. 8. 27, 필자 촬영)

非物质文化遗产

传统
技艺

金斗笠高丽酱酿造技艺

高丽酱酿造技艺历史悠久，在东北被誉为传统的“母亲”，家家户户离不开，在饮食中占据十分重要的地位。金斗笠高丽大酱酿造主要以无公害无污染的优质大豆和辣椒、长白山天然矿泉水发酵而成。制作工艺独特，“咸，辣，甜”味和适，色泽鲜艳，味道鲜美。品种多样，为长白县饮食文化的特色产品。









창바이산만족문화박물관 비물질 문화유산 부스에 내걸린 조선족 된장술 양조 장면

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고, 2008년에는 조선족 학춤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에 지정하였으며, 조선족 농악무는 2009년 9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명록에 등재하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선족의 문화까지 자신들의 문화인양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점점 확산하는 모양새다.

3. 육정산고분군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발해 유적 육정산고분군이다. 육정산은 높이 603m인데, 6개의 작은 산봉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고분들은 골짜기에 분포하는데 제1고분군(서쪽)에 30여 기, 제2고분군(동쪽)에 50기가 산재해 있다.

그중 제1고분군에 발해 3대 왕인 문왕 대흠무의 둘째 딸 정혜공주(貞惠公主, 737~777)의 무덤이 있다. 처음에는 정혜공주의 생몰년을 알 수 없었으나 1949년부터 중국 학자들이 발해 유적을 발굴하면서 고분에서 묘비문이 출토되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문에 따르면, 정혜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로서 출가하였으나 그 남편은 공주가 죽기 전에 죽었고 보력(寶曆) 4년 여름 4월 14일 을미, 나이 40살에 죽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죽은 지 3년 만인 보력 7년 겨울 11월 24일 갑신에 진릉(珍陵) 서원(西原)에 배장(陪葬)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서 고분군이 발해 초기 왕실과 귀족의 무덤이라는 사실과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할 당시 도읍의 위치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육정산 부근은 발해 초기 도읍지가 분명한데, 중국 정부는 만주족의 성지로 만들어 버렸다. 고분군 안에는 1993년에 정각사(正覺寺) 사찰

“
최근에는 창바이산문화론이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왜곡하는 정도를 넘어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가치를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한다.
”

과 함께 48m 높이의 금정대불(金鼎大佛)이 세워졌다. 이 정각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구니 사찰이라고 한다. 문제는 육정산고분군 안에 2011년 9월 청조문화관(淸朝文化館)을 만들고 만주족 조상을 모신 사당 청조사(淸祖祠)와 2층 규모의 창바이산신사(長白山神祠)까지 조성했다는 것이다. 만주족 시조가 처음 도읍을 세운 곳이 백두산 동쪽의 오도리성(鄂多理城, Odoli Hoton)이라는데, 이와 전연 상관 없는 발해 유적지 안에 만주족의 성지를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서 중국 정부는 2015년 이곳을 중국 최고 등급인 5A급 풍경구로 지정하며 엄청난 규모의 관광지로 만들었다. 특히 청 황실의 후예와 만주족이 매해 여기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강희제가 창바이산신사에서 백두산에 망제를 지냈다는 것을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창바이산문화론의 일환에서 발해 역사를 지우고 만주족의 역사로 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이곳을 찾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 안타깝다.

최근에는 창바이산문화론이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왜곡하는 정도를 넘어 백두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가치를 자신들이 독점하려고 한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2007년에는 백두산을 5A급인 창바이산풍경구로 승격하였다.

현지통신



육정산고분군 안내 표지석



정각사와 금정대불(2023. 8. 28, 필자 촬영)



청조문화관 전경



창바이산신사(2023. 8. 28, 필자 촬영)

현지통신

이에 걸맞게 백두산을 세계적인 문화·레저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2008년 8월 창바이산공항을 개항하는가 하면, 백두산과 동북지방의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이제는 동북공정을 넘어 창바이산문화론에 집중할 때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과거 고구려와 발해 역사뿐 아니라 지금 조선족 문화의 원류조차도 훗날 중국의 것으로 둔갑하여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지 못할 일이다.



이계형(李桂炯, Lee, Kye-hyung)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문학박사)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중앙대학교, 가천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친일진상규명위원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Message from the Planning Editor of Vol. 8 Wee, Ka-ya

Guest Essays

In Search of a New Perspective into Balhae History

Lee, Sung-si

Focus I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History of
Balhae**

**Retrospective and Perspective of the Excavation of Kraskino
Balhae Castle Site**

Kim, Eun-kuk

**Historical Records of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Study of Balhae History,
*Annotated Compilations of Balhae Historical Records***

Kwen, Eun-ju

Focus II

The Balhae People

Controversies over Dae-joyong's Origin and Founding Location of Balhae

Lim, Sang-sun

Dae Mooye and Dae Moonye Brothers

Yun, Jae-woon

**The Tombs and Epitaphs of Princess Jeonghye and Princess Jeonghyo
of Balhae**

Park, Yu-jeong

Citizens of Goryeo Were the Former Citizens of Balhae

Park, Soon-woo

Yu Deuk-gong's *History of Balhae*

Kim, Jong-bok

Field Reports

Now, we need to keep an eye on China's 'Changbai Mountain Cultural Theory'

Lee, Kye-hyung